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신협

#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 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사진

VOL 547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47 February 2026.2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국사진  
www.pask.net

한국사진

www.pask.net

한국사진  
www.pask.net

2 2026  
February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2026 제65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공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64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신 회원 각위

(경유)

제목 제65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

1. 회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정관 제19조 ②항에 의거하여 본 협회 제6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관 제20조 1의 ④항 및 ⑤항의 부의사항에 따라 이번 총회는 전체 회원 총회로 진행됩니다. 상세 안건 및 내용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정관 제20조 2의 ②항에 따라 첨부된 위원장에 총회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기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회신기한은 2026년 2월 27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아 래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일 시 : 2026년 2월 28일(토) 13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 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 준회원

회 순 : ① 전차 총회록 접수

② 경과보고

③ 안건상정

1) 감사보고 및 2025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 대손상각 처리의 건

4)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의 승인의 건

5) 기타의 건

\*총회 참석시 회원증 혹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신방법]

① 우편 :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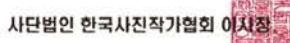
② FAX : 02-2655-3130

③ 스마트폰 활용 후 이미지전송 : 010-9785-3130

④ 이메일 : koreapask@daum.net

\* 회신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18시

\* 위원장 양식은 총회자료집에 첨부 되어있으며, 협회 홈페이지 각종서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      상임이사      이사장  
김형준      배택수      유수찬

시행      사무처-26026-01      접수  
                우[07995]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701호      홈페이지 : <http://www.pask.net>  
전화번호 : 02-2655-3131-7      팩스번호 : 02-2655-3130      E-mail :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1. 일 시. 2026년 2월 28일(토) 오후1시

2. 장 소.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

3.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실 경우에는 첨부된 위임장을  
개최일 이전 2월 27일(금) 18시까지 우편발송, 팩스, 스마트폰 촬영 후  
이미지 전송, 이메일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참석시 회원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회신방법]

1. 우편 :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2. Fax : 02-2655-3130

3. 스마트폰 활용 후 이미지전송 : 010-9785-3130

4. 이메일 : koreapask@daum.net

5. 회신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18시

5. 문의 : 02-2655-3131~3

##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2번 출구 방향 → 도보로 5분 소요(방화행)

## 버스노선 안내

목동7단지, 종로학원 : 간선 640, 650 지선 5012, 5616, 6211, 6628, 6630

목운초, 중학교 : 간선 603 지선 6624, 6637, 6638, 700 일반 98

하이스트, 종로학원 : 간선 571 지선 6617, 700 마을 양천03, 양천04

# Contents

February 2026 Vol.547

## Cover Story



### 성주희(군포지부) - 얼음의 표면

겨울은 풍경을 덮으며 형태를 지우고,  
표면에 시간의 흔적을 남긴다.

얼음 위에 눈과 물이 그려낸 문양과  
질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낸  
형태의 순간을 포착했다.  
보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남아있는  
감각과 정적에 집중한다

캐논 5D마크IV  
초점거리 55mm  
ISO 200, 1/60초  
F/11, 브러쉬아트 작업

03

### Headnote

AI 시대, 건강한 창작 환경 만들어 갑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24

### 전시광고

[이담영 두 번째 개인전]

BLACKBOX : An AI's Perspective on Classic Mechanics

기계의 심장을 투과하는 하얀 시선 - 이담영(서울)

28

### 전시광고

[김상필 사진전] 달동네 뒷골목엔 삶의 온기가 흐른다

기억이 머문 자리 - 김상필(인천)

32

### 전시광고

[서정철 개인전] 수천년 세월 지킨 마다가스카라의 종인들

신이 된 나무 - 서정철(합천)

36

### 전시광고

[정경원 사진전] 오선지 음표처럼 일상을 음악처럼

전선 위의 참새 - 정경원(수원)

40

### 전시광고

[한병률 흥계표 이도형 3인전] 초원의 혼 魂, 그 영원하고 뜨거운 질주

병오년 馬 - 한병률(경산) 흥계표(대구) 이도형(경산)

44

### 전시광고

[제8회 이춘희 개인사진전] 거친 바다 위 어둠을 밝힌다

제주, 믿음의 등불 · JEJU, The Light of Faith - 이춘희(용인)

50

### Photo Review

〈Palimpsest 팔림세스트〉 - 2025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역사·순간·미래·창조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시선 - 조주은

56

### 리뷰 |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인전부스

궁궐 전각에 흐른 50년의 시간, 朝鮮의 숨결 - 김종호(서울)

3인 작가의 시선으로 본 그 산 그 바다, 베트남 - 한서정, 조춘호, 남성희

색깔 없는 생명체에 찬란한 빛을... 무지의 수증 세계 2025 - 김재영(상주)



32



44



## AI 시대, 건강한 창작 환경 만들어 갑시다

새해의 기운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는 2월, 우리 사진예술계는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도 사진이 지닌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월에는 협회의 주요 사업들이 연이어 진행되며 새로운 한 해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63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심사는 전국 각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창작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로, 동시대 한국 사진예술의 흐름과 미학적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우리 협회의 창작 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심의를 통해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자와 단체를 재조명하고, 사진문화의 사회적 기여와 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상 절차를 넘어 한국 사진문화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예술대학 제5기 졸업전시가 라메르갤러리에서 개최되어 젊은 창작 인재들의 열정과 실험정신이 관객과 만나는 소중한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작품에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진예술의 확장 가능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사업의 성과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창작 지원, 교육 강화, 국제 교류 확대, 그리고 회원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기반 이미지 시대 속에서도 사진의 예술성과 윤리, 저작권 보호 체계를 확립하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연대가 곧 협회의 힘이며, 한국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입니다. 새해의 초입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한 해가 모두에게 창작의 기쁨과 성취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Headnote

# Contents

February 2026 Vol.547



62



66



74

## 지상전 01

CAMO 시리즈로 본 사진가  
탄디웨 무리우(케나) Tandiwe Muliu

## 지상전 02

빛이여 흐르라, 그림자여 멈춰라  
사진 속의 찰나 - 순간 - 김용열(마포구)

## Photo Essay 01

사라져 갈 것인가, 얼음 꽂 되어 남을 것인가  
기억의 빙점 · Freezing Point of Memory - 백명자(대전)

## 사진강좌

### Review & Preview

루이지리 “사진의 출발점은 새로운 시작”  
Infinite Landscapes - 김재훈

### Photo Theory

길을 묻는 예술에 이정표를 제시하다  
이미지 시대의 캐논과 사진가의 역할 I - 배택수

### Travel destination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예술을 한다  
21세기의 노예 해방 - 최승언

## 협회소식

###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5년 6차 이사회 결과 및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회원동정

## 업계소식

### Gallery

한병률 흥계표 이도형 3인전 외

##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6년 2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박민종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점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진예술대학 제6기 모집

(2026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신청 자격요건

-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6년 3월 20일(금) ~ 7월 24일(금)

2학기 개강 2026년 8월 28일(금) ~ 12월 18일(금)

기획전시회 2027년 1월 중 (추진예정)

##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대면수업 월1회 이상 필수참여, 과제이수 40%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6년 3월 개강 이전까지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6기 강의장소 안내

## 이론수업

-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 실습수업

- 강의별 추후 공지예정
- 사진촬영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대학**  
**사진예술대학 6기**

The PASK Photography  
Art College 6th

## 이덕만의 특수촬영 전문과정 모집

(2026년 4월 7일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강좌개요

- 많은 사람들이 풍경사진을 이름난 포인트에서의 촬영하기에 필연적으로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된다.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차별화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특수촬영을 통해 나만의 기법으로 이미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 색다른 촬영을 원하는 작가들을 위한 특수촬영을 주제로 이론, 촬영실습, 편집실습을 병행으로 진행된다. 과정에서 저속촬영, 틸팅, 다중촬영, 카메라 저속 HDR, 사계의 은하수 촬영, 특수한 빛 갈림 촬영 등의 다양한 촬영기법을 강의한다.

### 강좌대상

일반사진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2026년 상반기)

- 모집인원 : 50명 이내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 강의기간 : 26년 4월 7일(화) 개강 ~ 7월 7일(화) 종강  
(어린이날 및 선거전일 휴강)
- 강의시간 : 1주/4시간(13:00 ~ 16:50) 총 12주 과정  
48시간 이수

### 수강료

- 강좌 수강비 : 40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 입금기한 : 2026년 4월 7일(화) 정오(수업 전) 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이체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 강좌 수강 혜택

-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 자체 제작 교재 제공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명의 수료증 발급
-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 수강생 준비물

- : 카메라 및 렌즈, 삼각대, ND필터 외(별도안내),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톱) 최소 필요사양, 포토샵 프로그램 설치, 필기도구 외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대학 이덕만의 특수촬영 전문과정

차별화된 프레임 속의 풍경을 담아내다

###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접수문의 시 필히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룡\_그들만의 버스킹\_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작

## (입회점수 있음) 제44회

#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기간】 2026년 4월 21일(화) ~ 22일(수)

【접수시간】 10:00~18:00 도착분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사진작품
- 출 품 료 : 1인당 공모전 부문 90,000원 / 추천작가 부문 90,000원(작품집 포함)
- 작품규격 : 공모전 부문 / 추천작가 부문
  - 1) 공 모 전 부문 : 작품은 길이 기준 50cm ~ 77cm 사이의 규격으로 인화하여 대지(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단, 대지(우드락) 포함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2) 추천작가 부문 : 11" × 14" 인화지 작품(우드락 미부착) 1점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발표작에 한함)
- 공통사항 : 출품작과 동일한 내용의 8" × 10" 인화지 작품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요망.
- 원서기입 제출시 필히 필수기재 항목을 모두 기입 후 제출요망.
- 공모전 분야 출품시 출품작에 해당되는 부문별 분야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원서배부일 : 2026년 2월 예정 ~ 접수일까지
- 원서배부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다운 활용, 지회·지부, 주요현상소 등
- 접 수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본 협회 교육홀
- 심사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 심사장소 : 추후공지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결과발표 : 2026년 4월 중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수상작품의 10% 이내)  
입선(출품작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추천작품상 3점 이내

### 작품반출

- 심사발표 후 낙선작 반출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10일 이내 반출 가능.
- 반출방법 : 소속 해당 지회(광역시, 도지회), 직접수령, 폐기만 진행 예정(포장 및 택배비 부과 될 수 있음) (단, 출품시 접수한 8" × 10" 인화지는 반출처리 하지 않음)
- 기간 내 미수령시 폐기처리 됨.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지지 않음)

### 기타유의사항

- 수상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영화과 영상예술특기자 사진부문)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 사용권을 통해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02-2655-313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종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호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운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 ■ 2025년 장학금 기탁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홍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필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자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현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종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항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시사무국장 1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욱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시록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박충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김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준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태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항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시사무국장 1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욱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시록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김철수 이사 30만원	2025년 장학금 지급 3,10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고미선 여주지부 회원 10만원	오길준 순천지부 회원 3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이상영 이사 100만원	신경애 이사 9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박용득 구미지부 회원 10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이승모 금산지부 부지부장 10만원	<b>2026년 장학금 기탁</b>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김종철 금산지부 사무국장 10만원	<b>장일미 평택지부장 400만원</b>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30만원	고양지부 일동 50만원
장현종 여수지부장 30만원	김희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진광준 구미지부 부지부장 30만원	김정희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신용재 자문위원 30만원	박영숙 대구지회 회원 30만원	손석운 이사 150만원
워싱턴지부 6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정봉주 평창지부장 30만원
이종연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백승의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100만원	고성상 평창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오문자 성남지부 회원 200만원	김도운 평창지부 부지부장 1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오성조 자문위원 50만원	반순희 평창지부 간사 1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이윤순 충주지부 회원 50만원	김광재 촬영지도위원 사무국장 10만원	황영구 포항지부장 1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호규 대구지회 지회장 30만원	박석관 이사 50만원	박상화 포항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애영 중랑예총회장 10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정건영 자문위원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박현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박만석 이사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신영식 광양지부 자부장 100만원	
신현영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처장 1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30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김준도 이사 30만원	신윤호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500만원	홍종복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현재 잔액 329,850,418원**

#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봇, 펜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랩**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랩  
밸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SUNWAYFOTO  
GH-PRO+**

##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썬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려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활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pexar

펙사, 디지털 액자의  
새로운 기준

“당신의 추억을 작품처럼”



2K

타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명도

사진 & 영상

간편한 공유

32GB

내부 저장공간

구매하기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적용

#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cm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 cm  
HIGH

최대높이  
156cm

20 kg  
PAYLOAD

페이로드  
20kg

##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라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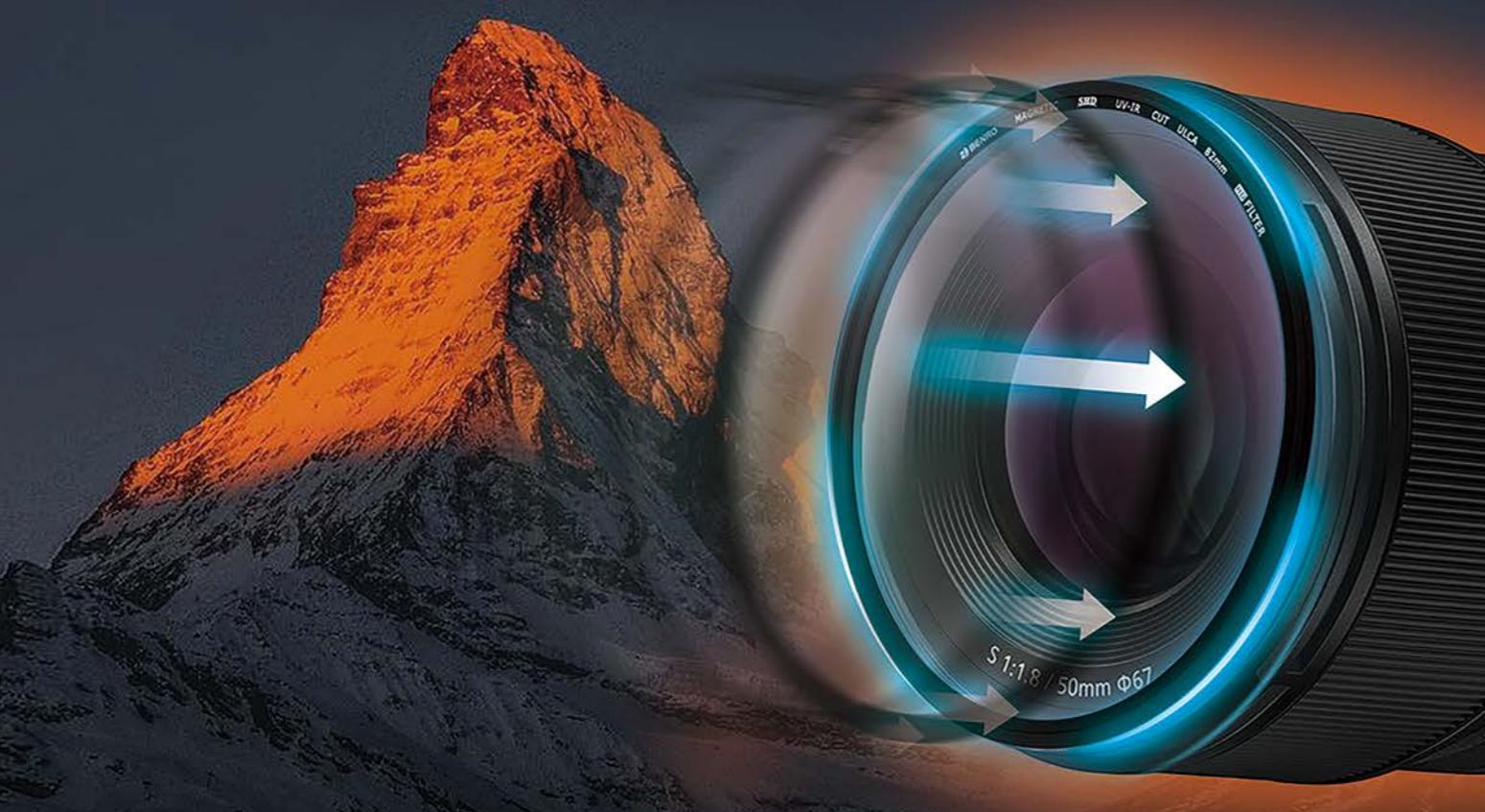


사진: 탐험가\_@withkhyun (석현)/ 스위스, 마테호른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 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 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제 25회

## 나주배꽃·우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사)한국사협 나주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나주 배꽃과 영산강변의 유채꽃을 주제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 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대회일시▶ 2026년 4월 11일 (토) 우천불구

접수마감▶ 4월 30일 (당일소인 유효)

### 참가요령

- ▶ 대회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우천불구)
- ▶ 대회장소 : 나주시 금천면 나주배박물관(오전), 영산강변 동섬 유채꽃밭(오후)
- ▶ 참가비 : 1인당 30,000원 (중식제공 및 작품집 증정)
- ▶ 참가자격 : 사진 애호가 누구나
- ▶ 참가신청 : 당일 현장 접수 또는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 작품내용 : 나주배, 나주명소를 배경으로 한 배꽃이 있는 작품  
행사 당일 모델과 나주배꽃, 나주배과수원 전경, 영산강변 유채꽃 촬영 작품
- ▶ 작품규격 : 컬러 또는 흑백 및 슬라이드 11" × 14" (장정불요), 디지털사진은 3000픽셀 이상
- ▶ 출품수량 : 2점 이상 4점 이내 (참가증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화제를 명기할 것, 2점 이상은 복사 가능 / 참가증 없이 출품할 시는 4점까지 3만원)
- ▶ 접수처 : (우.58254)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지부장 010-2605-4656 / 사무국장 010-9888-5600
- ▶ 접수마감 : 2026년 4월 30일(목) (당일소인 유효)
- ▶ 심사 : 2026년 5월 15일(금) (공개심사)
- ▶ 심사발표 : 2026년 5월 18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http://www.pask.net>)
- ▶ 작품전시 : 2026년 6월 13일(토) ~ 15일(월) 3일간
- ▶ 시상일시 :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3시 /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시상내용

- ▶ 금상 1점 : 나주시장 상장, 작품 매입비 100만원
  - ▶ 은상 2점 : 나주시의회의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50만원
  - ▶ 동상 3점 : 나주배농협조합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30만원
  - ▶ 가작 5점 : 나주예총회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10만원
  -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 ▶ 입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 (입선작은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선정-입상작 포함)



###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 사협 입회접수 인정
-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입상작은 작품파일을 5일 이내에 주최측에 제출 ([ysk4656@hanmail.net](mailto:ysk4656@hanmail.net))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보정,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축전, 작품전 대행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세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힙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힙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수리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깊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힙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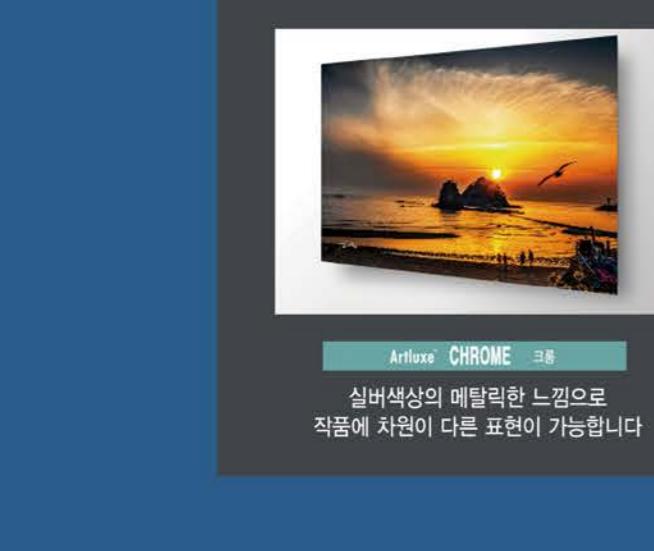
PNP 아트룩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털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기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은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mailto: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http://www.pask.net) 베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 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원목입체액자

국내유일(독점)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자세한 사양 보러가기

프리미엄 아트페블릭 아트랩 원목입체액자(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아트페블릭 인화지만 사용합니다.

장섬유인 닥나무 운용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랩 입체액자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랩 원목입체액자(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설경한지 한지랩



사진축전 바로가기



한지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www.dujinart.com](http://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바로가기

#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PS: 중국산 저가 아트페블릭 인화지 국내 “유통경보” 인화지의 질이 다르다(중국산과는 인화품질 비교불가)

업체에 인화작업전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 및 검증 후 작업하세요?

100년의 보존가치. 엄선된 품질관리 두진에서 만나보세요.



띄움&올림 액자 뒷면



띄움&올림 액자



(화이트, 우드, 월릿, 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 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 45mm)



디아셀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셀



고광택 디아셀



액자보러가기



액자보러가기



액자보러가기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 사진의 가치는 프레임에서 완성됩니다

수십 년간 사진과 함께한 아뜨레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액자만을 만듭니다



## ARTTRE FRAME

###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Frameless



###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엣지 아크릴액자



White



###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Black



###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Brown



#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 중국 황산 촬영,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장노출 촬영(이세만)
2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로라 촬영 - 일본 비에이 유빙 & 단정학 촬영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일본 복사꽃 & 장노출 촬영
4월	- 스코틀랜드 & 네덜란드 촬영 - 체코 남모라비 봄 촬영
5월	- 호주 남부 장노출 촬영,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봄복외)
6월	- 이탈리아 드로미티, 베트남 무枉차이 달라는 촬영
7월	- 아이슬란드 백야 촬영 여행 - 필리핀 블루라군 촬영
8월	- 뉴질랜드 장노출, 스코틀랜드 여름 촬영
9월	- 아이슬란드 가을, 일본 가을 단풍 촬영 여행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1차)
10월	- 베트남 무枉차이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2차), 슬로베니아 가을 촬영 여행
11월	- 일본 비에이 촬영, 인도네시아 숨바섬 촬영
12월	- 베트남 장노출,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 제39회 충주전국 사진공모전

2026. 3. 11. 도착분(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출품자격 전국 사진인

작품규격 11" X14" 컬러 및 흑백사진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출 품 료 1인 20,000원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제목,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출품표 부착

접수마감 2026년 3월 11일 도착분

접 수처 27388 충북 충주시 관아5길 10 (예총회관 2층)

문 의 지부장 010-9688-3357, 사무국장 010-6296-2560

심사발표 2026년 3월 중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충주지부  
카페(<https://cafe.daum.net/cjpassk>)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시 상 식 2026년 4월 11일(토) 오후2시 예정

시상내역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 충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 충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기작 5점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주지회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육추(育雛) :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는 것

## 기타사항

◆◆ 출품 유의사항 :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함 ◆◆

· 금, 은, 동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16" x 20" 사진을  
인화 제출하여야 함.

·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파일을 제출  
하여야 함. (E-mail : billssun@naver.com)

· 수상작품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지며,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고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작이 기발표작 및 유사작으로 판명 시 상권을 취소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함.

· 출품작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 종료 후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개별 발송함.

· 입상 및 입선작은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판단여부는  
주최측 결정에 따른다.



[이담영 두 번째 개인전]

BLACKBOX : An AI's Perspective on Classic Mechanics

## 기계의 심장을 투과하는 하얀 시선

이 담 영(서울)



©이담영\_Alfa Romeo\_33 Stradale\_1984

1차 전시(서울) 전시일시 2026년 2월 3일(화) ~ 2월 10일(화)

전시장소 57th 갤러리 (서울 종로구 을곡로3길 17 – 안국역 1번 출구)

2차 전시(일산) 전시일시 2026년 2월 22일(일) ~ 2월 28일(토)

전시장소 한 갤러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태영프라자 B1 한양문고 내)

전시관람료 무료



©이담영\_Austin\_Mini\_Cooper\_classic



©이담영\_Hyundai\_Grandeur\_first generation\_1987



©이담영\_Volkswagen Beetle\_Type 1\_1948



©이담영\_BMW 5 Series E28

화려한 도장과 매끄러운 곡선. 우리는 흔히 자동차의 겉모습에 매혹된다. 하지만 그 단단한 철판 안쪽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사진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글을 써온 작가 이담영(Lee Dam-young)이 오는 2월, 서울과 일산에서 잇달아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 <BLACKBOX: 클래식 매카닉에 대한 인공지능의 시선>을 통해 카메라 렌즈가 닿을 수 없는 곳을 보여준다. 펜 대신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든 작가는 클래식 카의 내부를 투명하게 투과하여 캔버스 위에 펼쳐 놓는다. 이것은 차가운 기계 장치를 빌려 대상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적 보고서이자,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그려낸 아날로그의 정밀화다.

### 블랙박스를 열어 빛을 비춘다

전시의 제목은 ‘BLACKBOX(블랙박스)’다. 띠어쓰기 없이 굳게 닫힌 이 단어에서 관객은 보통 어두운 조명과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담영 작가는 그 예상을 보란 듯이 뒤집는다. 이번에 공개되는 스무 점의 작품은 모두 눈부시게 하얀 배경 위에서 전개된다. 작가는

‘블랙박스’라는 미지의 영역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뚜껑을 열어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밝은 빛 아래로 끌어낸다. 작품 속 자동차들은 겉치장을 벗고 양상하지만 아름다운 뼈대를 드러낸다. 이 이미지들은 차가운 엑스레이(X-ray)의 형식을 빌렸지만, 동시에 1930년대 엔지니어가 종이 위에 꾹꾹 눌러 그린 설계 도면처럼 따뜻한 질감을 품고 있다.



©이담영\_Hyundai\_Pony \_first generation\_1975



©이담영\_Jaguar\_E-Type\_1961



©이담영\_Porsche\_356\_Speedster\_1955

수 많은 작가들이 무수한 작품을 촬영하지만 그것은 사물의 겉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AI의 도움을 받아 이담영 작가가 내놓은 자동차는  
마치 투명한 차체를 촬영한 것처럼 차량의 겉과 속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 스무 번의 셔터, 최적의 각도를 찾아서

이담영 작가는 사진학을 전공했다. 그는 누구보다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잘 알기에 역설적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렌즈는 사물의 표면을 기록하는 데 탁월하지만, 그 안에서 박동하는 심장까지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해 AI라는 새로운 암실을 선택했다. 이번 전시에 걸리는 스무 점의 작품은 철저하게 사진적인 문법을 따른다. 작가는 스무 대의 자동차를 모두 동일한 5:7 비율의 캔버스에 담았다. 하지만 그 앵글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차는 정측면(Side Profile)으로, 어떤 차는 비스듬한 대각선 뷰(Diagonal View)로 담겨 있다.

이러한 ‘앵글의 변주’는 작가의 집요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차종마다 엔진이 놓인 위치와 구동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작가는 기계적으로 앵글을 통일하는 대신, 각 자동차의 심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최적의 각도를 선택했다. 덕분에 관객은 차종마다 다른 엔진의 위치와 배기관의 복잡한 흐름을 가림 없이 목격하게 된다.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다. 이렇듯 전시장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스무 점의 작품들은 저마다 가장 솔직한 포즈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심리학, 겉과 속의 통합을 말하다

작가의 또 다른 배경인 심리학은 이 차가운 기계 도감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다. 심리학이 사람의 겉표정(페르소나)과 숨겨진 내면(무의식)을 통합하여 이해하려 하듯, 작가는 자동차의 철판 뒤에 숨은 기계 장치를 ‘사물의 내면’으로 해석한다.

작품 속에서 자동차의 겉과 속은 분리되지 않는다. 얇은 선으로 남은 차체의 실루엣과 그 안을 꽉 채운 엔진이 한 화면에 겹쳐 보인다. 작가는 겉모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부품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동시에 보여준다. 작은 나사 하나, 톰니바퀴 하나가 맞물려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 내면의 풍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담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대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가.” 겉을 감싸고 있는 강철 판 너머에도 여전히 뜨겁게 작동하는 우주가 있음을 인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 는 사실을 이 하얀 설계도들은 말해주고 있다.



©이담영\_Mercedes-Benz\_300SL\_Gullwing\_1954



©이담영\_Moskvitch 412\_1967

## 서울과 일산, 두 번의 만남

이담영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은 서울과 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객을 만난다.

첫 번째 전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안국역 1번 출구에 위치한 ‘57th 갤러리’에서 열린다. 고즈넉한 서울의 정취 속에서 하얀 캔버스 위로 펼쳐지는 클래식 카의 향연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전시는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태영프라자

지하 1층, 한양문고 내 ‘한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서점이라는 문화 공간 속에 자리한 갤러리에서, 책을 읽듯 기계의 구조를 읽어 내려가는 지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겉모습을 찍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상의 본질에 닿을 수 없음을 작가는 잘 알고 있다. 이담영이 AI와 함께 그려낸 이 투명한 기록들은 올겨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을 응시하는 법’을 조용히 일러줄 것이다.



## [김상필 사진전]

달동네 뒷골목엔 삶의 온기가 흐른다

## 기억이 머문 자리

김 상 필(인천)

전시일시 2026년 3월 10일(화) ~ 3월 15일(일)

전시장소 부평 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전시작가 김상필(010-7331-9210)

도시의 변화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조용히 과거형이 된다. 나는 서울과 인천의 오래된 골목, 언덕 위 달동네, 개발의 경계에 놓인 마을들을 걸으며,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삶의 온기'를 마주했다. 기울어진 낡은 지붕, 벽에 남은 손때, 오후의 빛이 스치는 좁은 계단 하나에도 그곳을 살아낸 사람들의 시간이 스며 있다. 도시는 흔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정당화하지만, 먼저 사라지는 것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던 삶의 결

들이다.

이 작업은 사라짐 자체를 애도하기보다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기억의 잔상'을 붙잡기 위한 시도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경계에서, 도시는 언제나 존재와 부재, 속도와 정지의 두 얼굴을 동시에 드러낸다. 사라지는 풍경을 기록하는 일은 결국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일이다. 이미 지워지고 있는 곳에서 조차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상필\_서초구 구룡마을(50cmx33cm)



©김상필\_인천 주안동(80cmX53cm)



©김상필\_상계동 양지마을(50cmX33cm)

## 제1장 사라지는 풍경

텅 빈 골목, 허물어진 지붕, 빛과 바람만이 드나드는 집들은 도시가 기억을 지우기 직전의 마지막 표정을 담고 있다. '사라지는 풍경'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뒤로 흐르고 있는 시간의 단면이다.



©김상필\_상계동 합동마을(45cmX30cm)

## 제2장 남아 있는 흔적

낡은 벽면의 얼룩, 지붕 위의 벽돌, 오래된 간판, 시간이 스며든 질감 하나 하나가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말해준다.

‘흔적’은 부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존재를 증명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삶의 기척을 통해,

도시는 사라짐 너머의 긴 호흡을 드러낸다.

“흔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 있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김상필\_인천 주안동(45cmX30cm)



©김상필\_상계동 합동마을(50cmX33cm)



©김상필\_상계동 양지마을(33cmX50cm)



©김상필\_상계동 합동마을(27cmX40cm)



©김상필\_부산 호랭이마을(50cmX33cm)



©김상필\_서초구 구룡마을(50cmX33cm)



©김상필\_성북구 북정마을(33cmX50cm)



©김상필\_성북구 북정마을(33cmX50cm)

**“나는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온기를 본다.”**

## 제3장 머문 기억

기억은 붙잡을 수 없지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공간 속에 스며들며 사람이 떠난 뒤에도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머문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의 숨결이다.



©김상필\_서초구 구룡마을(70cmX47cm)



©김상필\_성북구 북정마을(33cmX50cm)



전시광고

[서정철 개인전]

수천년 세월 지킨 마다가스카라의 증인들

# 神이 된 나무

서정철(합천)



전시일시 2026년 2월 25일(수) ~ 3월 2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F (관람시간 10:30~18:3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35-6 신관1F)

개전식 2026년 2월 25일(수) 16:00

전시작가 서정철(010-7155-3210)

그 곳이 신비한 이유는 바오밥 나무가 서있기 때문이다.

수천년 세월 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기에  
짧은 세월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을 수없이 목격했을 바오밥 나무들...  
그 자태가 보는 이를 겸허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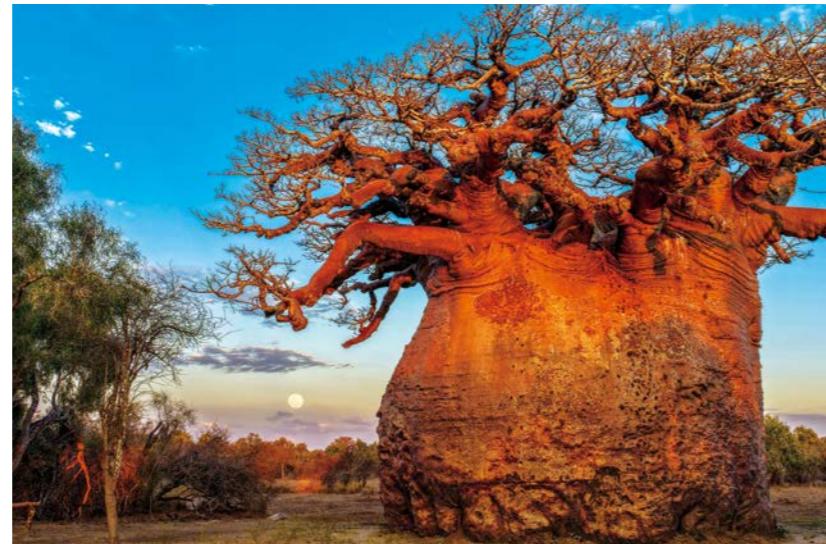


©서정철\_만자원주민과 바오밥(101cmx76cm)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새들이 멀리서 날아와 가지에 깃든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처럼 오늘도 바오밥 나무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서정철\_여명빛에 물든 3천년 바오밥(101cmx76cm)



©서정철\_5천년 바오밥 새벽 보름달(101cmx76cm)



©서정철\_안도바또까 포니바오밥(101cmx76cm)

마다가스카르는 바람이 노래하고, 흙과 바다가 오래된 전설을 품은 섬입니다.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은 바오밥 나무. 수천 년을 살아온 거대한 몸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신성한 아침 그 모습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을의 기억과 세대의 숨결을 잇는 살아있는 신전 같았습니다. 그 굵고 뒤틀린 몸체엔 비와 바람, 해와 별이 새긴 흔적들이 깃들어 있고, 그늘 아래 모인 사람들은 나무에게서 위로를 받고, 비밀을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작업은 바오밥 나무를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하늘과 땅, 인간

과 영혼을 연결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바라본 기록입니다. 캔버스 위에 표현된 매듭 같은 곡선과 깊은 색채는, 시간과 기억이 한 생명 안에서 뒤엉기며 만들어낸 서사의 흔적입니다.

신이 된 바오밥은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변화를 한없이 지켜봅니다. 대지의 심장처럼, 사람들의 기도와 웃음, 그리고 슬픔까지 모두 품은 채요.

이번 전시는 관객이 그 앞에 서서, 잠시나마 그 긴 시간과 넓은 품속에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무와 눈을 맞추고 스스로도 시간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정철\_안둔비리 아이들(101cmx76cm)



©서정철\_5천년 바오밥과 원주민(101cmx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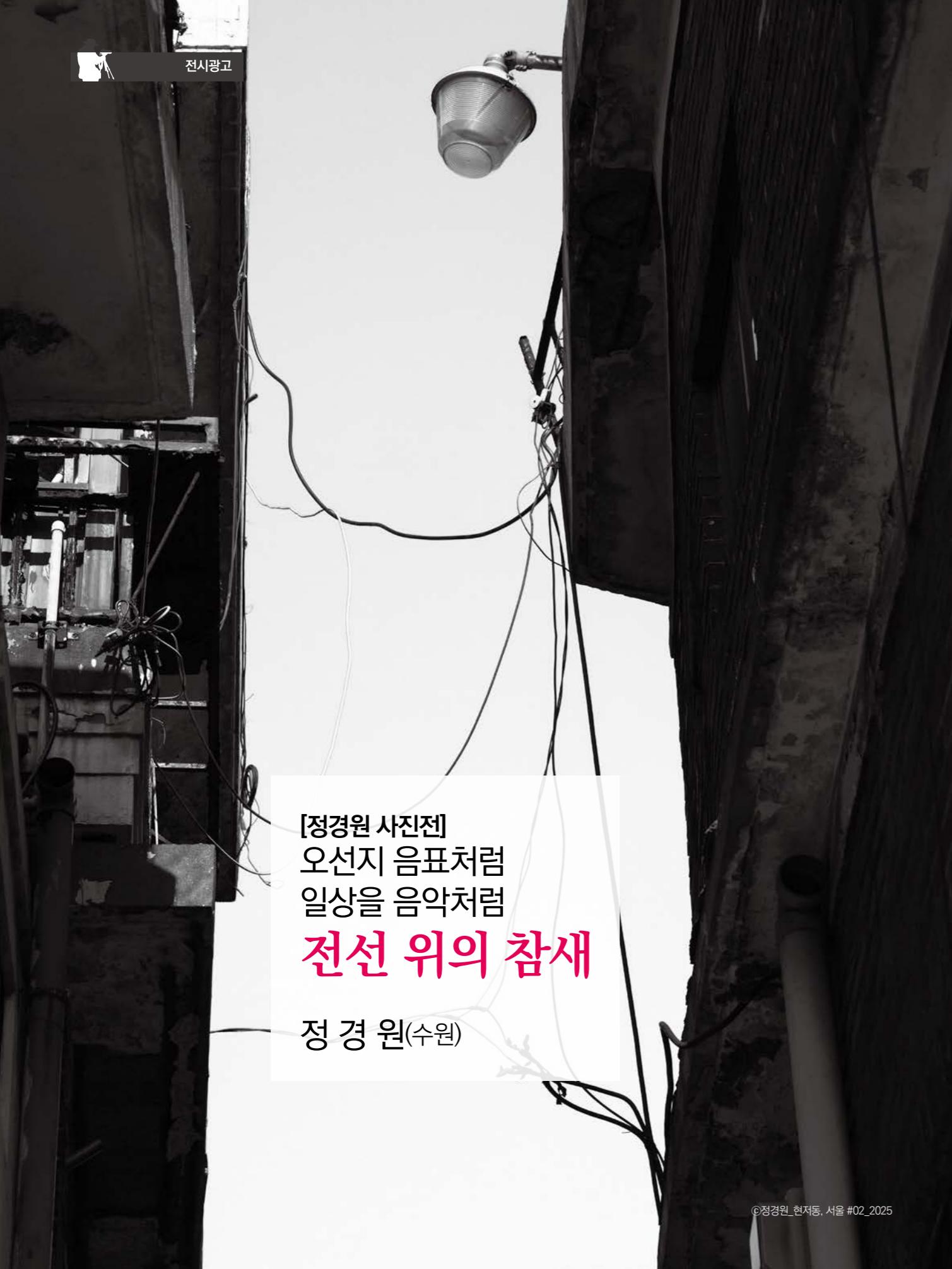


전시광고

[정경원 사진전]  
오선지 음표처럼  
일상을 음악처럼  
**전선 위의 참새**

정 경 원(수원)

©정경원\_현저동, 서울 #02\_2025



©정경원\_종로, 서울\_2022



©정경원\_정자동, 수원\_2025



©정경원\_자동, 수원\_2025



©정경원\_금정, 군포\_2025

전시일시 2026년 3월 3일(화) ~ 3월 8일(일)

전시장소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2전시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오프닝 2026년 3월 3일(화) 17시

전시작가 정경원(010-9452-8100)



©정경원\_성곡사, 충남\_2024



©정경원\_곡성, 전남\_2025



©정경원\_현저동, 서울 #01\_2025

어린 시절 전선에 나란히 앉은 참새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카메라를 들고 전선을 쳐다본다. 참새 대신 내 시선이 그 위에 앉았다. 전선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다.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전선이 교차하며 만들어 낸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이 작업은 장엄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포착한 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자 인상의 기록이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과 절제된 프레이밍을 통해 관람자의 일상화된 의식을 깨우고, 언어 밖의 세계로 이끌고자 한다.

이 작업은 '전선'이라는 평범한 대상을 세 가지 시선으로 고찰한 기록이다.

### 첫째, 삶의 풍경에서 마주하는 전선

전선은 프레임 전체를 가로지르는 수평선이자 전봇대에서 뻗어 나가는 방사형 구조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늘을 배경으로 고립된 선들은 그 자체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마치 악보 위의 오선지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구조가 된다. 수평과 수직이 만드는 강렬한 질서 속에서 구조적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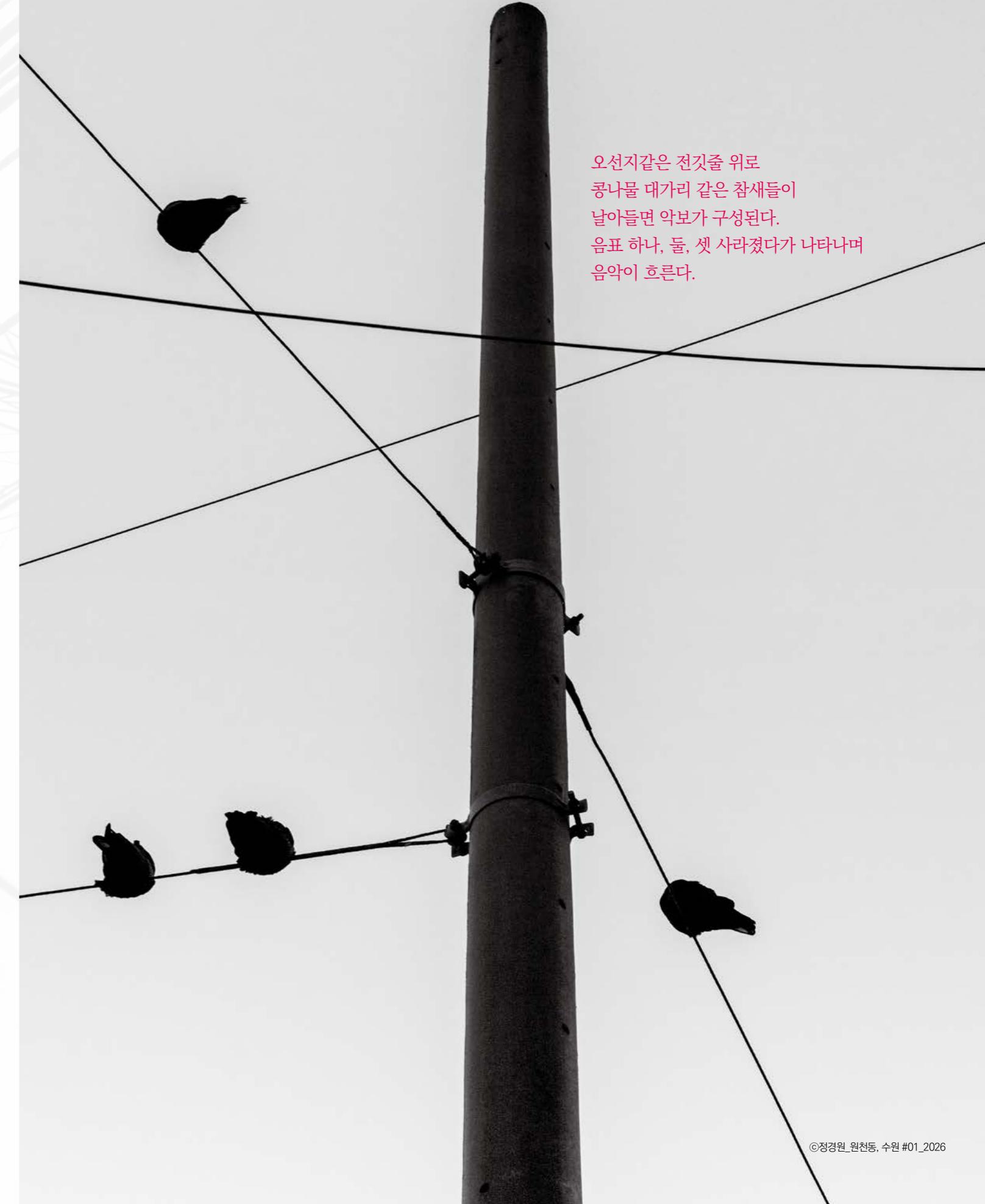
### 둘째, 일상에 스며든 전선

전선을 주변 환경과 대조 혹은 조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건물을 가로지르는 전선, 교회 십자가 옆을 스치는 선, 부처님의 눈을 가리는 검은 선들. 여기서 전선은 삶의 흔적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풍경의 일부가 된다.

### 셋째, 주관적 시점으로 해체된 전선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의도적인 프레이밍을 통해 전선은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가진 사물로 읽히지 않는다. 선과 면의 조합, 빛과 그림자의 교차만이 남은 추상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순수한 조형 요소로서의 선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에 집중하며, 외부 세계의 기록을 넘어 내면의 감정을 투영하는 사적 가능성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전선은 연결과 단절,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도시의 이면이다.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의 토대인 전선 위로, 참새가 떠난 빈자리를 떼까마귀가 채운다.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도 전선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그 역사를 증언한다. 이 전선을 매개로 도시를 새롭게 읽고 그 본연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오선지같은 전깃줄 위로  
콩나물 대가리 같은 참새들이  
날아들면 악보가 구성된다.  
음표 하나, 둘, 셋 사라졌다가 나타나며  
음악이 흐른다.



## [한병률 홍계표 이도형 3인전]

초원의 혼 魂, 그 영원하고 뜨거운 질주

# 병오년 馬

한병률(경산) 홍계표(대구) 이도형(경산)

우리의 카메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흑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이 거칠게 숨 쉬는 땅, 내몽골의 대초원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변치 않는 대지의 주인, 몽골의 말(馬)들이 써내려가는 장엄한 생의 대서사시를 마주했습니다.

기울의 몽골은 황금빛으로 물든 자작나무 숲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군마(軍馬)들이 일으키는 자욱한 먼지 폭풍은 마치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칭기즈칸의 기마 군단이 재림한 듯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개울과 호수를 거침 없이 건너는 그들의 역동적인 도약은, 풍요로운 계절에 만개한 야생의 에너지를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치는 극한의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힘든 그 혹한의 설원 위에서도 생명은 경이롭게 이어집니다.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단단한 얼음과 눈을 밟고 유포해져 마른 풀을 뜯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숭고합니다. 차가운 설원 위로 떠 오르는 태양을 향해 질주하는 거대한 무리, 역광을 받아 황금빛으로 터져 나오는 거친 숨결은 영하의 추위를 녹여버리는 생명에 대한 뜨거운 찬가(讚歌)입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마주했던 그들의 거침없는 애정이, 이 작품들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치지 않는 건강과 희망, 그리고 위대한 성취를 향한 뜨거운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빛의 바다를 가르는 영혼의 흐름

(Flow of Soul Cleaving the Sea of Light)

황금빛 역광이 타오르는 호수 위로 검은 실루엣의 군마(軍馬)들이 거침없이 돌진하며, 잔잔하던 수면을 순식간에 친란한 '빛의 바다'로 바꾸어 놓는다. 압도적인 순간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육체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만들 어내는 첫 번째 폭발, 그 거친 발굽 소리가 사진 너머로 들려오는 듯하다.



©한병률\_빛의 바다를 가르는 영혼의 흐름

## 황금빛 격랑(激浪)속 폭발하는 애정

(Exploding Wildness in the Golden Raging Waves)



©한병률\_황금빛 격랑(激浪)속 폭발하는 애정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무거운 물살의 거센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질주하는 가장 격렬한 순간이다. 터질 듯한 근육과 가쁜 숨결이 느껴지는

# 병오년 馬

1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1월 16일(금) ~ 2월 9일(월)

전시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커뮤니티센터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3월 1일(일) ~ 3월 31일(화)

전시장소 대구 수성구 매호동 달커피갤러리

전시작가 한병률(010-5610-0236) 홍계표(010-3546-2810)

이도형(010-4221-0856)

## 불멸의 도하(渡河), 그 멈추지 않는 의지

(Immortal Crossing, The Unstoppable Will)

작품 3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어받아, 마침내 거친 물살을 헤치고 북쪽 히 앞으로 나아가는 웅장한 도하(渡河)의 모습을 보여준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황금빛 테두리로 선명하게 빛나는 말들의 거대한 실루엣은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

## 격랑(激浪)을 깨우는 포효

(Roar Waking the Raging Waves)



©한병률\_격랑(激浪)을 깨우는 포효

호수의 거센 저항을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가장 폭발적인 순간을 날카롭게 담아냈다. 말의 힘찬 도약에 의해 공중으로 비산(飛散)하는 수만 개의 물방울들이 역광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며 부서진다.



©한병률\_불멸의 도하(渡河), 그 멈추지 않는 의지



©홍계표\_희망의 질주, 새해를 열다

## 희망의 질주, 새해를 열다

(Dash of Hope, Opening the New Year)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태양이 광활한 설원을 깨우는 순간이다. 어둠을 밀어내며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일출 속에서, 거대한 말 무리가 땅을 울리며 힘찬 질주를 시작한다. 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장관은 긴 겨울의 침묵을 깨고 친란한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여는 웅장한 서사시와 같다.

## 빛을 머금은 숨결, 황금의 맥(脈)

(Breath Soaked in Light, Vein of Gold)

렌즈가 터질 듯 꽉 들어찬 백마의 모습은 폭발적인 생명력 그 자체이다. 강렬한 역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내뿜는 거친 숨결은 빛을 머금어



보석처럼 빛나고, 불끈 솟아 오른 근육의 실핏줄은 마치 살아 꿈틀대는 '황금의 맥(脈)'을 보는 듯합니다.



©홍계표\_빛을 머금은 숨결, 황금의 맥(脈)

### 태양의 말(馬), 거침없는 도약(跳躍) (Horse of the Sun, Unstoppable Le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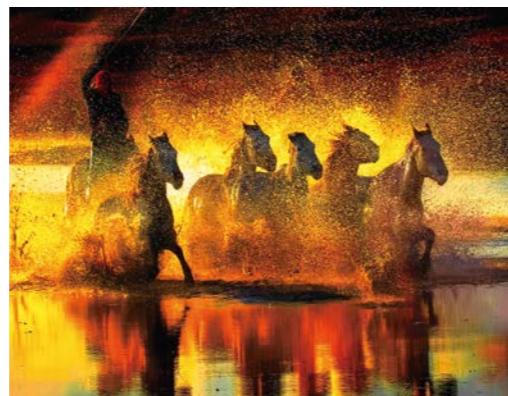


©홍계표\_태양의 말(馬), 거침없는 도약(跳躍)

차가운 개울물을 박차고 오르는 '붉은 말(Red Horse)'의 가장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역광을 받아 온몸이 붉게 타오르는 말이 비상(飛翔)하듯 솟구치자,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물보라가 빛을 머금은 보석처럼 흘날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 황금빛 희망 파노라마 (Golden Panorama of Hope)

광활한 호수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이 수면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그 빛 속에서 일렬로 늘어서 질주하는 말들의 웅장한 실루엣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스케일의 극적인 파노라마를 완성한다.



©홍계표\_황금빛 희망 파노라마

### 천마(天馬)의 꿈, 신화가 되다 (Dream of the Heavenly Horse, Becoming a My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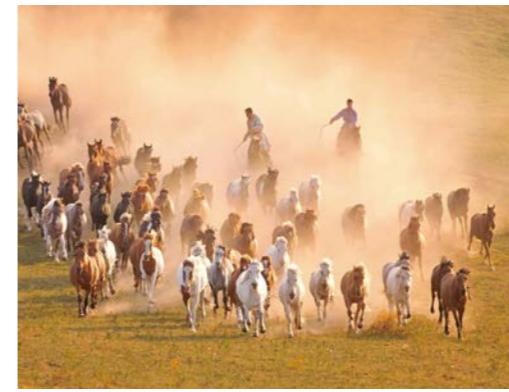
©홍계표\_천마(天馬)의 꿈, 신화가 되다

빛과 안개, 그리고 눈보라가 서로 깊이 스며들어, 현실과 환상의 경계조차 아득하게 녹아내린 순간이다. 그 몽환적인 공간을 유영(游泳)하듯 달리는 말의 신비로운 모습 속에서, 작가는 마치 지상을 넘어 하늘로 비상하는 전설 속 '천마(天馬)'의 현신(現身)을 마주한 듯한 경이로운 전율을 느꼈다.

### 혼돈의 먼지 폭풍, 그 안의 애정 (Dust Storm of Chaos, The Wildness Within)

질주의 한복판, 가장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의 소용돌이를 포착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추상화시켰다. 자욱한 먼지 구름은 초원의 배경은 물론 말들의 개별적인 형태까지 집어삼켜 버렸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입니다. 세 명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초원의 풍광이나 말의 외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가을의 흙 먼지와 호수 속에서도, 겨울의 설원 위에서도 동일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피'와 '불굴의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도형\_혼돈의 먼지 폭풍, 그 안의 애정



©이도형\_대지의 울림, 천 년의 질주

마리의 군마(軍馬)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광활한 대지 위로 길게 뻗어 나가는 거대한 흙먼지 띠는 이 질주의 엄청난 규모감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이도형\_황금빛 자작나무 숲을 가르는 돌풍

### 황금빛 자작나무 숲을 가르는 돌풍 (A Squall Cutting Through the Golden Birch Forest)



©이도형\_황금빛 자작나무 숲을 가르는 돌풍

가을의 절정에 다다라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군마들이 거친 돌풍처럼 숲의 가장자리를 치고 나가는 순간이다. 빽빽하게 늘어선 하얀 자작나무 줄기와 노란 잎사귀들이 만들어내는 정직하고 서정적인 배경 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드는 말들의 검고 강렬한 실루엣이 시각적으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도형\_진군(進軍)의 선봉, 흙먼지를 뚫고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흙먼지 장막을 배경으로, 가장 앞서 튀어나오는 선봉(先鋒) 말들의 모습을 망원 렌즈로 압축하여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뒤따르는 무리가 먼지 속에 가려진 것과 대조적으로, 앞장선 말들의 땀으로 번들거리는 강인한 근육과 앞만 보고 달리는 결연한 눈빛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전시광고



©이춘희\_대정교회 창립 1937.8

### [제8회 이춘희 개인사진전]

거친 바다 위 어둠을 밝힌다

## 제주, 믿음의 등불 · JEJU, The Light of Faith

### 이 춘 희(용인)

**1차 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7일(일) ~ 12월 31일(수)

전시장소 할렐루야교회 2층 루야아트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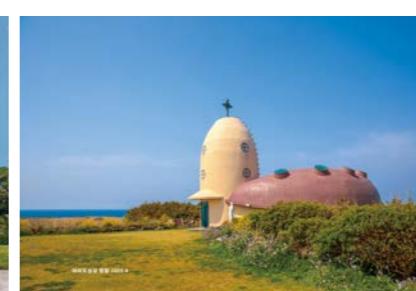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3월 3일(화) ~ 3월 31일(화)

전시장소 제주극동 방송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

**3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4월 1일(수) ~ 4월 3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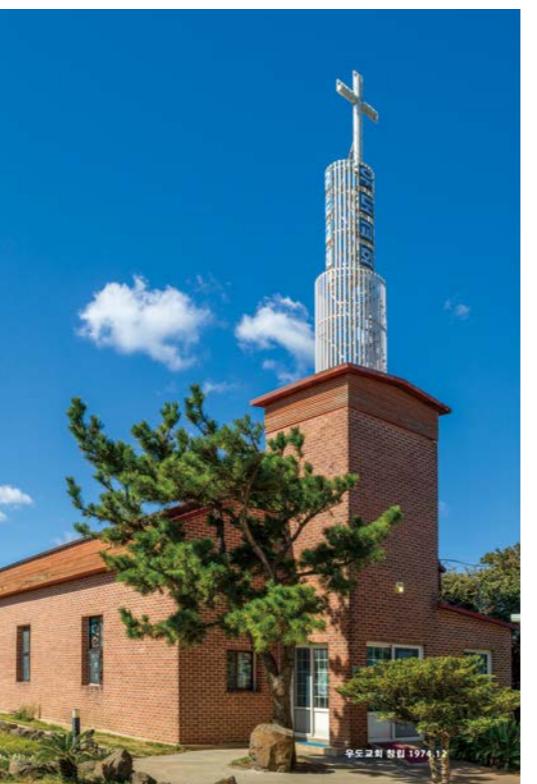
전시장소 제주대정교회 비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6번길 11)

전시작가 이춘희(010-6326-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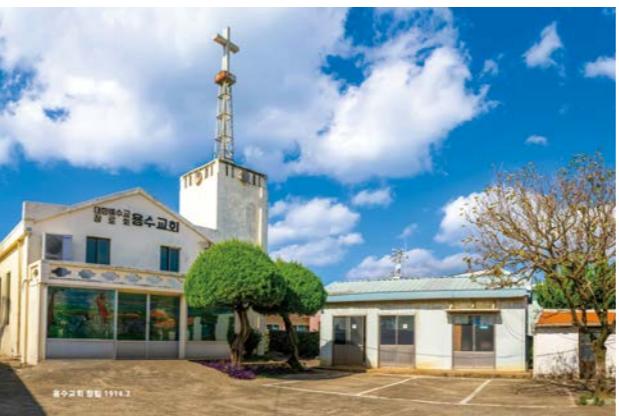




©이춘희\_예래교회 창립 1949.3



©이춘희\_우도교회 창립 1974.12



©이춘희\_용수교회 창립 1914.2



©이춘희\_봉개교회 창립 1949.2



©이춘희\_제주영락교회 창립 1952.1



©이춘희\_제주중문교회 창립 1915.2



©이춘희\_조천교회 창립 1909.1

풍랑과 파도, 폭풍이 시시때때로 사람의 생명을 덮치는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제주의 삶은 자연을 주관하는 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땅에 등불을 밝힌 교회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웃깃을 여미게한다.



©이춘희\_삼양교회 창립 1915.10



©이춘희\_서귀포중앙교회 창립 1954.3



©이춘희\_성안교회 창립 1908.2



©이춘희\_제주동부교회 창립 1908.2



©이춘희\_세화교회 창립 1915.11



©이춘희\_애월교회 창립 1946.2



©이춘희\_합덕교회 창립 1950.9



©이춘희\_순례자교회 창립 2011.7

'제주,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제주도의 눈부신 자연과, 1908년 목음의 첫 불씨 이후 이 섬을 밝힌 기독교 신앙의 빛을 기록하고자 시작된 사진 프로젝트이다. 바람과 바다, 돌담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제주의 교회 풍경은 오랜 무속의 땅을 비춘 영적 등불이며, 세대를 건너 이어진 현신의 증언이다.

제주의 하늘과 예배의 순간을 가장 본질에 가깝게 담기 위해, Canon EOS 5D Mark IV와 표준 렌즈, 파노라마 기법을 사용했고, 시각 확장을 위한 어안 렌즈와 DJI Mavic 3드론 촬영을 병행하여 26곳의 특색 있는 역사적 교회를 기록했다. 질감과 신성한 울림을 살리기 위해 인화 용지는 Art Peblck를 선택했다. 기다림 끝에 담긴 자연광은 나에게 예배의 한 순간이었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빛의 증언'이다. 제주 본섬과 면 섬의 교회까지 찾아간 촬영의 여정이 관람자에게도 작은 순례의 창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진에 담긴 교회의 빛과 공동체의 숨결이 마음에 위로와 영적 울림을 오래 스며들기를 바란다.



© You Su Chan

##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

### 월간 한국사진 2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김철수
  - 빛의 길
- 사진은 사라지는 순간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의 결을 느끼게 하는 장치다.  
붉은 기둥과 푸른 용 사이에서 나는 인간의 염원이 빛으로 피어나는 장면을 보았다.
- Nikon Z9  
렌즈 니콘 24~120mm, f 4  
촬영장소 경주 불국사



- 윤기창
  - 깨어나다
- Nikon D800E  
ISO100, f8  
렌즈 24~70mm  
셔터속도 1/4000  
촬영장소 신광면 원법사



- 이건목
  - 초록의 생명
-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낸 물길 위에서 바위와 돌을 덮은 파래는, 바다 본연의 초록이다.  
바닷물이 빠지면 햇빛을 받고, 다시 물이 차오르면 숨을 고르는, 파래는 바다의 리듬에 맞춰 살아간다.  
<중략>  
하얗게 펴진 바다 위로 떠오른 싱그러운 초록은 자연 질서와 생명의 강인함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풍경을 담아본 것보다,  
물길이 빛어낸 생명의 시간을  
담아보려고 한 작업이다.



- 장덕재
  - 눈오는 날
- 잔뜩 화가난 찌푸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고상하고 품위를 갖추는 멋스럽고 아름다운 날  
Canon  
렌즈 35~70mm(f2.8)  
조리개 5.6, 셔터속도 1/30  
ISO100  
촬영장소 지리산 노고단



- 흥이선
- The color of Korea



## 〈Palimpsest 팔림세스트〉 - 2025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역사·순간·미래·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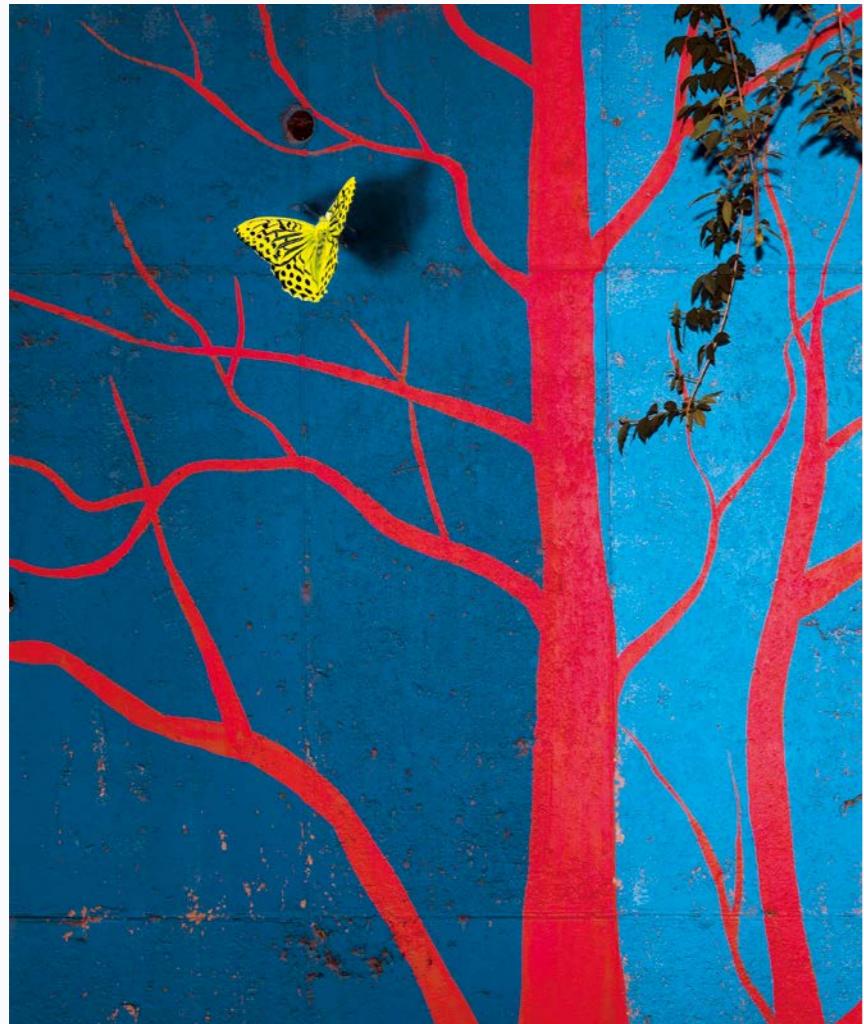
###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시선

글\_조주은\_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주임교수 /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지우고 난 후 그 위에 다시 쓴다. 팔림세스트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그 어원을 추적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지운 것이 다시 나타나서 새로 쓴 것과 중첩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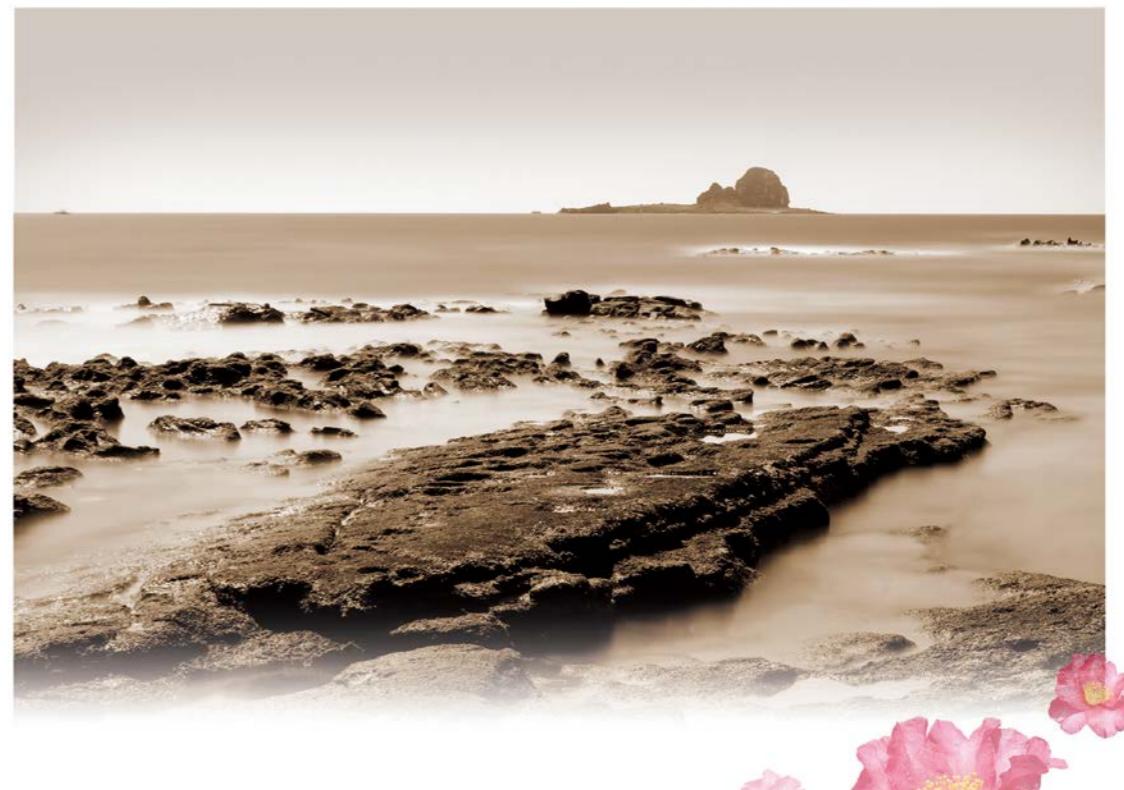
이처럼 예술도 역사도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재창조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박상화\_새천년대로 #02

2025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Palimpsest 팔림세스트〉는 지워진 것과 남겨진 것,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는 시간의 예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팔림세스트라는 말은 원래 중세 유럽의 필사본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귀한 양피지 (pergament) 위에 쓰인 글자를 긁어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기록을 덧쓰던 관습을 뜻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글자들이 세월이 흐르며 배어 나와, 두 개의 시간이 한 장의 페이지 안에 공존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이는 고대 문헌을 복원하는 단서가 되었고, 동시에 역사와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은유가 되었다.

오늘날 ‘팔림세스트’는 단순한 필사 방식의 용어를 넘어, 기억의 층위, 역사의 중첩,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같은 사상가들은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팔림세스트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텍스트는 이전의 텍스트를 품고 있으며, 모든 이미지는 과거의 시선과 맥락을 지우지 않은 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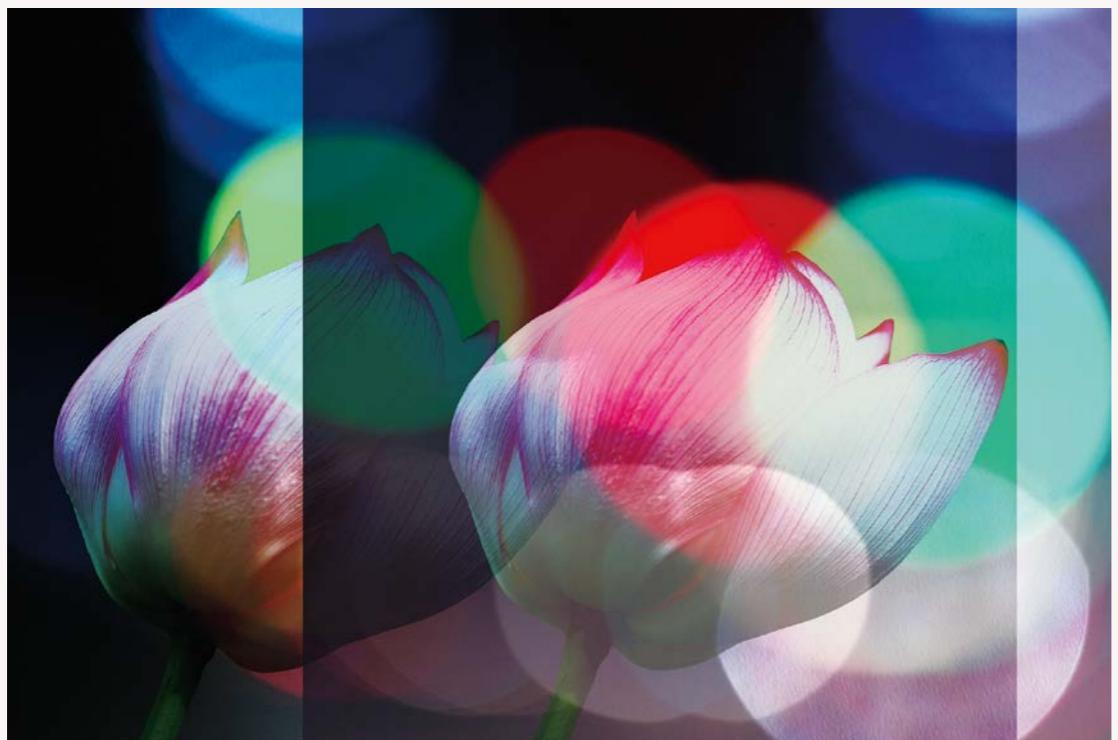
©장일미\_그해의 바다 #01



©안동호\_바다의 조각들 속삭임



©이희수\_스톤헨지-영국



©신경애\_희망 #02



©이종열\_손끝의 시간 #01\_95x72.3cm



©한지영\_악어떼



©민지희\_사유의 공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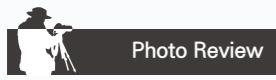


©차혜련\_2학년

사진예술 역시 팜필름과 달아 있다. 한 장의 사진은 피사체가 존재하던 순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사물에 스며든 수많은 기억과 역사, 그리고 촬영자의 해석을 함께 담는다. 필름 위의 물리적 흔적, 디지털 이미지의 레이어, 오래된 건물 위에 덧입혀진 새로운 구조물, 재개발로 변모한 골목의 잔향—이 모든 것이 시간의 층위를 이루며 팜필름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번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시에 참여한 5기 수강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각자의 시각 언어로 재해석했다. 어떤 작품은 오래된 사진과 현재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하나의 화면 속에 두 개의 시간이 숨 쉬게 한다. 어떤 작품은 다중 노출이나 반투명 인쇄를 통해, 지워진 듯 남아 있는 기억의 잔영을 드러낸다. 또 다른 작품은 물리적 표면을 훼손하고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지우는 행위’와 ‘새기는 행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가 지향하였던 것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맞물리며 미래의 시선을 만들어내는가를 탐구한다. 팜필름



©류중열\_물방울 순간적 충돌 #01



©이정애\_길2-돌아갈 수 없는 길은 그리움이다(회상)



©추기호\_이미 알고있다 #01

는 지워진 것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 겹쳐진 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관람객은 각 작품을 보며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기억과 시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필름세스트적 사유를 일상과 예술 속에서 다시 꺼내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은 사진이론을 기반한 체계적인 사진학습을 통해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6기 모집을 진행한다. 동시에 한국사진작가협회가 대한민국 사진예술 발전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 김용열의 PHOTOSHOP 전문과정 모집

(2026년 4월 8일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강좌개요

본 과정은 Adobe PHOTOSHOP을 이용한 디지털사진의 다양한 편집과 수정 기술을 다루는 강좌이다. 총 12주(36시간) 과정으로 1주당 3시간 수요일 대면 및 비대면 중강의를 통한 강좌를 진행하며,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 진행된다. 또한 본 전문과정은 엑셀, 워드, 한글 등 기본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촬영한 디지털사진 및 아날로그사진의 스캔 및 다양한 디지털 화상이미지를 이용한 편집, 수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강좌대상

일반사진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2026년 상반기)

- 모집인원 : 50명 이내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 강의기간 : 2026년 4월 8일(수) 개강 ~ 2026년 7월 8일(수) 종강
- 강의시간 : 1주/4시간(13:00 ~ 16:50) 총 12주 과정 48시간 이수  
(수업 후 약 1시간의 보강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음.  
단 수업일 변경시 안내 예정)

### 수강료

- 강좌 수강비 : 40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72899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 입금기한 : 2026년 4월 8일(수) 정오(수업 전) 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이체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 강좌 수강 혜택

-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 자체 제작 교재 제공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명의 수료증 발급
-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수강생 준비물 :**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탑) 최소 필요사양  
PHOTOSHOP 프로그램 설치(개강시 설명 진행),  
필기도구 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대학**

**김용열의**  
**PHOTOSHOP 전문과정**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사진 다양한 편집과 수정 강좌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접수문의 시 필히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4 HANKOOKSAJIN February 2026**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 궁궐 전각에 흐른 50년의 시간 朝鮮의 숨결

글, 사진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대한민국사진축전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호 고문(84)의 전시 부스에 들렸다.

**Q** 「조선의 숨결」이란 커다랗고 훌륭한 대 작품집을 만들고 전시하고 계신데, 이렇게 큰 작품집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A**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경복궁을 백 번 찍어도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한국의 어촌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고, 구름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고, 남이 안 하는 것만 골랐어-

요. 돌아가신 최홍만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한국의 어촌 사진집을 만든다니까, '그래 이게 바로 당신이 독특한 거야'라고 말했어요. 내가 800이 넘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사진이 뭐나? 그러다 보면, 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진 능력으로 뭔가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출판비가 2000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사진가도 조선의 역사를, 조선의 궁을 묶어낸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내가 한번 해보자,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내가 책을 만든 이에게 궁 관리소나 신문사에 한 권씩 다 보내라고 했어요. 알아주는 신문사가 있어 기사로 써주면 다행이고, 안 써주면 할 수 없지요.

### 김종호(서울)



©김종호

**Q** 이 사진 자료를 찍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A** 덕수궁 석조전 사진이 국전 시대에 출품한 것이고 이 사진이 70년대 후반쯤 돼요. 그러나 대충 따져도 50년은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게, 올해 10월까지 찍은 게 종묘 영녕전 등 이게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다수가 50% 60%는 한 12, 3년 전 것으로, 15년 전후로 내가 왜 궁에 관한 사진집이 없는가 고민했어요. 처음에 5대 궁을 엮으며 종묘는 넣지 않으려 했는데, 여론이 종묘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게 됐어요. 왕이 지방에서 일보고 사는 데가 행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행궁이 몇 군데 있어요. 제일 큰 행궁이 수원 화성행궁이에요. 그래서 행궁까지 넣었어요. 경복궁이 제일 넓고 건축물도 많고, 그다음이 창덕궁, 후원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창경궁, 다음에 덕수궁, 경희궁, 그다음에 행궁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 일도 없고 사진작가협회 역사가 70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걸 둘어서 글 쓴 책도 못 봤고, 사진도 둘어놓은 게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자. 그때부터 작성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1년 전에 집사람이 놀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다 말고 카메라 덮어놓고 10년을 아내 뒷바라지하다 보니 사협 일이고 뭐고 전혀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아내가 죽고 나니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가? 나라에서도 안 하고 사진작가도 안 한 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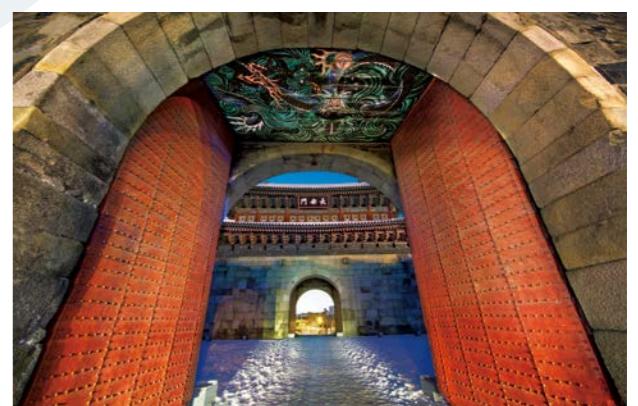
**Q**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A** 책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하죠. 그렇게 하는 게 10년도 넘었을까. 그래서 근래 찍은 것도 있지만, 그렇

게 1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찍었는데 필름이나 파일이 오래되니까 변질돼서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했어요. 남이 안 하는 사진으로 보람 된 일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찍어왔기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Q** 사진작가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A** 요즘에는 사진 만능 시대 아니에요.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핸드폰 셔터를 누를 수 있고, 70이나 80 된 사람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진도 좋지만, 사진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시각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만은 금물이고, 사진작가는 부지런해야 해요. 별로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생각을 옮기는 것은 두 다리니까, 그다음에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테크닉이 필요하죠.



©김종호

## 3인 작가의 시선으로 본 그 산, 그 바다 베트남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한서정(송파), 조춘호(구로), 남성희(연천)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대한민국사진축전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한서정-밀물의 꿈', '조춘호-감동 여행', '남성희-베트남 아촌마을 여행에서' 사진전 부스에 들렸다.

**Q 베트남 아촌마을에 한서정, 조춘호, 남성희 작가가 언제 며칠간 다녀오셨나요?**

**A**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5박 6일 다녀왔어요.

**Q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아, 있었죠. 모기도 많고 한국 날씨하고 달라서 너무 덥고 오지라서 먹을 것도 너무 없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Q 보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A** 보람은 가는 곳마다 사진 찍을 소재가 너무나 많아서 좋았습니다.

**Q 사진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A** 메콩강도 좋았고 컨터라는 곳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사진 찍을 소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진작가님들은 꼭 베트남 메콩강 외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출사지로 너무 좋아요.



©남성희\_어부들의 일상 3



©한서정\_밀물의 꿈 2



©조춘호\_감동여행-1

**Q 베트남에서도 주로 어디에 갔었나요?**

**A** 메콩강과 컨터하고 모캉차이 세 군데 갔다 왔는데, 다 좋았습니다.

**Q 베트남 촬영 갈 때 특별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특별한 건 없는데 메모리 카드를 많이 준비하고 비상약, 모기약, 더위에 대비해서 선크림 정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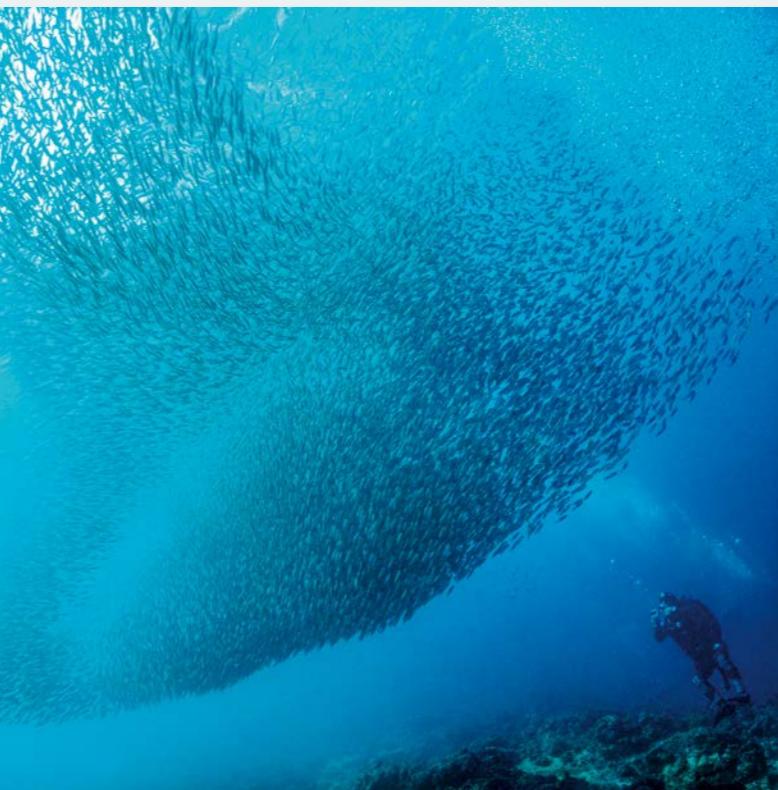
**A** 이번에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 전시를 하니까, 갤러리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진짜 좋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칭찬으로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만족했으니까 이렇게 발표도 하고 내년 2월 말쯤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갑니다. 갔다 와서 다음 제11회 사진축전에 도전하여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 색깔 없는 생명체에 찬란한 빛을... 무지의 수중 세계 2025

글, 사진 김의배(총보위원회 위원장)

김 재 영  
무지의 수중세계 2025

김 재 영(상주)



©김재영\_정어리떼(40×40)



©김재영\_부채산호(50×40)

12월 4일 오후 4시, 김재영 - 무지의 수중 세계 2025

- 사진 전시장 부스에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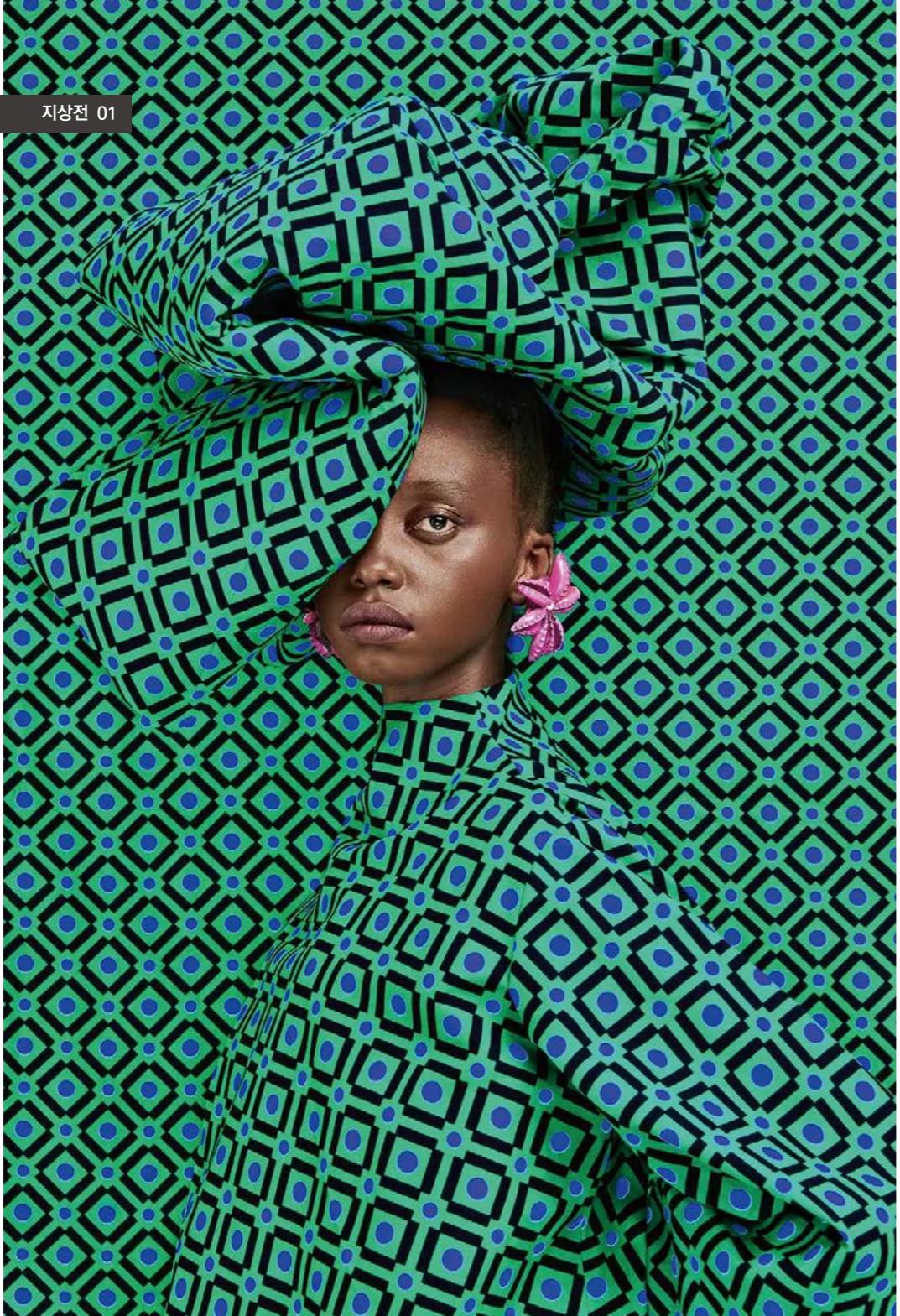
많은 관람객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질문했다.  
그러면 김재영 사진작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Q** 사진이 우리나라 근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A** 예, 맞습니다. 필리핀이 많고요. 이거는 몰디브, 저쪽은 오키나와, 거의 바다는 비슷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는 조류가 좀 세고 위험해요. 사실 물이 약간 턱하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데 제주도도 지금은 수온이 많이 높아져서 충분히 찍을 만하여 가능합니다.

**Q**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A**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건 바닷속엔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로보가 필요해요. 지속 광이 필요해요. 초점 잡을 때 이게 필요하니까, 물속에서 어두우니까 이걸 가지고 타깃 나이트라 하거든요, 이게 타깃을 찾아서 초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똑딱 이거든요. 소니에서 나온 똑딱이거든요, RS100이에요. 16메가까지 찍히고, 2470이에요. 2470 가지고 하면 광각사진 이런 사진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돈 포트를 달아서 12mm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접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걸 떼고, 요 앞에다가 접사링을 끼워요. 그러면 20cm 안에까지 들어가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밖에 안 돼. 247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놓고 이제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방수 처리가 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잠가버리면 요게 수심 45m까지는 물이 안 새요. 그리고 이제 가서 키우고 찍은 거예요. 여기 찍으면 여기 보는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CAMO 36 & 37 "다이아몬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2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 CAMO 시리즈로 본 사진가 탄디웨 무리우 Tandiwe Mul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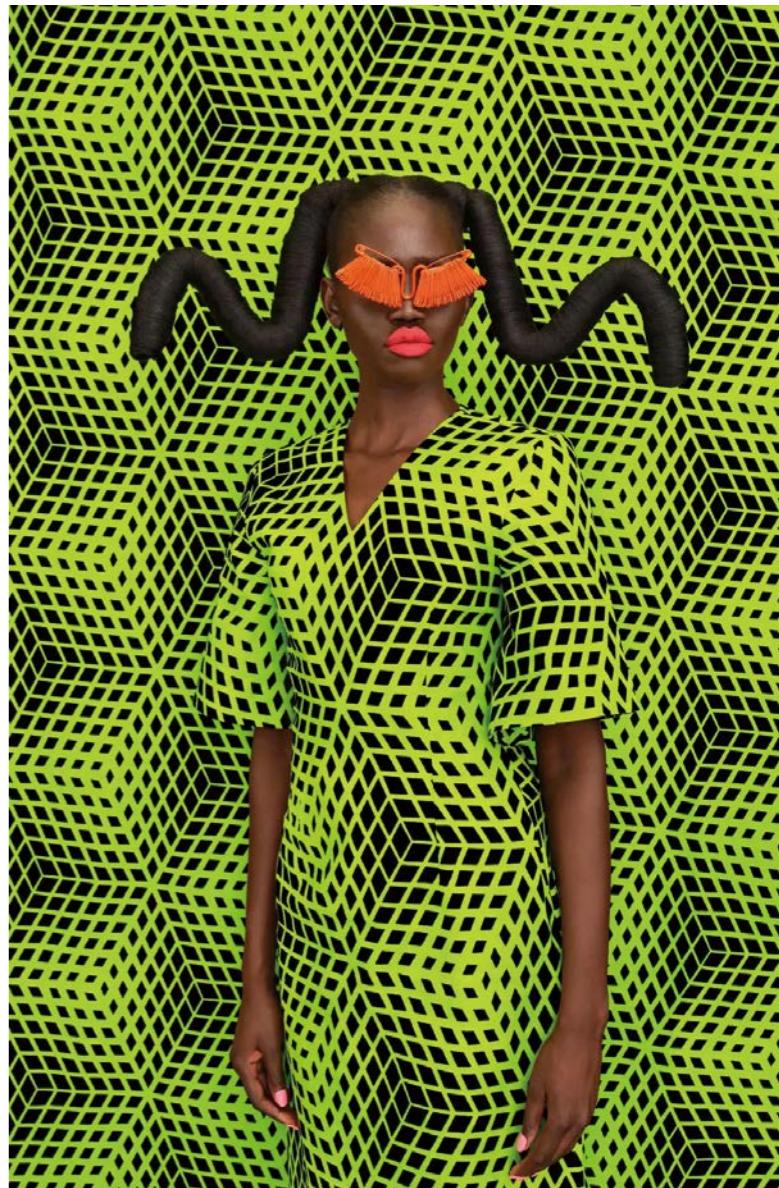
Presented by LONGCHAMP, 글 편집\_노성진(편집장)



THE PERFECT MASTERPIECE "남자의 얼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3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탄디웨 무리우의 사진은 아프리카만의 활기찬 문화 관습, 직물, 미의 이념이 혼합된 독특한 모습을 추구한다. 그녀의 CAMO 시리즈에서는 디지털 조작이 아닌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하며, 정체성과 자기 인식 문제에 맞서면서, 섬유와 일반 가정용품 등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적용하여 여성 권한 부여를 재정의하려 한다.

역사적인 앙카라 액스 직물이 탄디웨의 작품을 정의한다. 그녀의 작업의 최전선에는 직물을 사용해 주제를 사라지게 하고, 정체성과 그 시간에 따른 진화에 대한 성찰의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물은 그 자체로 저평가된 예술로, 역사를 포착하고 정체성을 표현하며, 그것을 짠 사람들만큼이나 역동적이다. 속담에 따르면 "나무는 뿌리 없이는



THE DEFENDER'S TRIBUTE "한 손으로는 하늘을 덮을 수 없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5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설 수 없다"고 하며, 전통의 깊이가 탄디웨의 이미지에 뿌리를 내리게 하며, 그녀는 현대 정체성에서 역사적 미의 서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탐구한다.

아프리카 속담인 "시냇물이 아무리 멀리 흐르든 그 근원을 결코 잊지 않는다"를 생생하게 구현하며, 탄디웨는 케냐인들의 일상과 연관된 사물을 대담한 액세서리로 재구성한다. 이 물건들은 화장지 를부터 머리핀, 그리고 작가가 자라면서 사용하던 모기 퇴치 코일까지 다양하다. 케냐에서는 물건이 원래 목적을 넘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재활용은 종종 수단이 부족한 인구에서 흔한 일이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가진 것이 적으면 그것을 변형하고 재사용한다."

문화적 창조는 각 이미지의 요소로 끝나지 않는다. 창조 과정 자체가 문화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탄디웨는 피사체들이 착용하는 의상과 안경을 디자인하며, 현지 재단사 및 장인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실현한다. 그녀의 작품은 작품의 구상부터 최종 인쇄 형태에 이르기까지 정밀함과 의도성이 특징이다. 그녀는 특수 종이에 인쇄하여 작품을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처럼 보이게 하여 시각적 착시를 완성한다.

잊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건축적인 헤어스타일의 풍부한 역사에 열정을 가진 그녀는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현대적 형태를 자신의 작품에 접목시키고자 영감을 받았으며, 이를 '역사를 현대화하는 것'이라 부르며, 역사적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 세대에게 과거에 대해 알리는 과정이다.

각 작품마다 아프리카 속담을 더해, 탄디웨는 구전 역사를 통해 기록된 세대의 지혜를 표현하는 동시에 문화를 새롭고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이 단어들의 사용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대륙이 급변하는 대륙 속에서도 유산이 현대 아프리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형성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땅의 속담을 아는 현명한 자는 어려움을 조화시킨다." 우리를 억누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유산이 자기 성찰의 기반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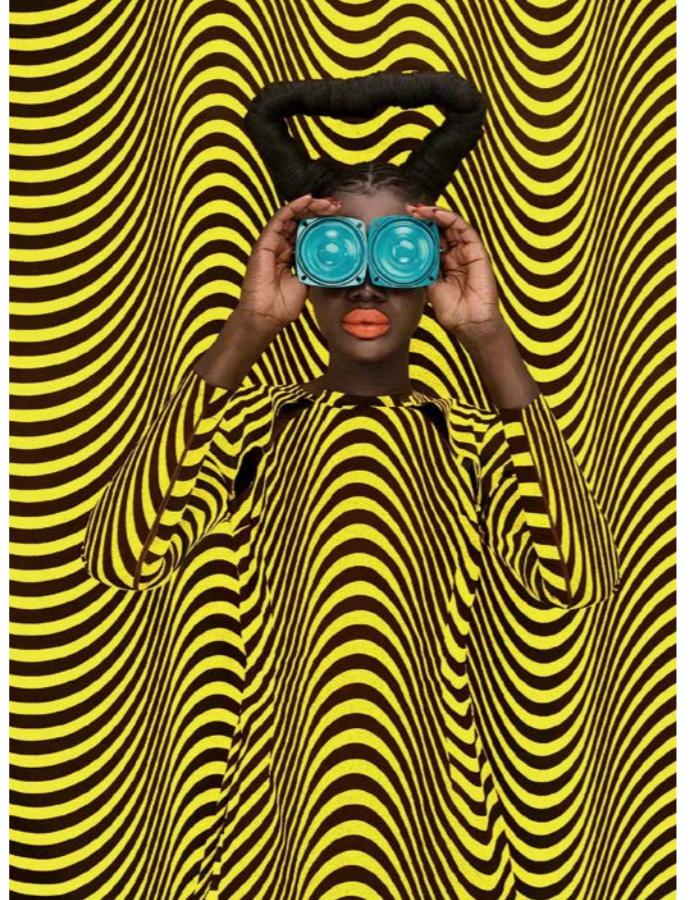
탄디웨는 현대 케냐에 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다채롭고 성찰적인 여정으로 안내하며, 현대 아프리카 초상화를 재해석하고 여성과 그녀의 자율성에 대한 대담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탄디웨 무리우에게 사진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기념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이다. 케냐 출신의 무리우는 KYOTOGRAPHIE의 아프리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로 초청받아 대표작과 교토에서 탄생한 신작을 선보이는 두 개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 SOUND OF MUSIC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일 수는 없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3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 CAMO 45 "강자가 앉아도 결코 악하지 않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2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여성으로서 케냐에서 남성 중심의 구조에서 살아온 무리우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전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아왔다. 이 경험은 CAMO 시리즈의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피사체가 배경 속으로 사라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반영하는 캔버스'로 떠오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과 기록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헤어스타일이 각 이미지에 숨겨진 의미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각 사진에는 아프리카 속담이 함께 붙어 있으며, 무리우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는 동시에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구전 전통의 지혜를 부드럽게 들이 마신다.

CAMO 외에도 무리오는 교토 레지던시 기간 동안 창작한 신작들도 소개할 예정이다. 무리오 자신은 일본에 기본 적이 없었지만, 직물과 직물의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여러 번 만났다. 이 관심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사용되어 온 직물과 패턴을 작품에 통합하여 케냐와 일본의 시각적 언어 연결과 겹치는 역사를 탐구한다.

케냐 출신의 사진작가로, 정체성, 문화, 여성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작품을 통해 탐구합니다. 무리우의 작품은 주로 양카라<sup>(\*)1</sup>와 동아프리카 캉가 천과 같은 직물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는 이 직물들을 캔버스로서 재정의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데 사용한다. 그는 여전히 케냐에 거주하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협업 행사<sup>(\*)2</sup> "Passengers in Transit"과 "WAX!"에 참여했다. 그는 파리 인류박물관 전시와 뉴욕 대학교에서 열린 개인전 "I Am Because You Are" 등 전 세계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또한 록펠러 재단 벨라지오 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케냐 국립박물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sup>(\*)1</sup> 밝고 다채로운 무늬가 있는 바틱 천으로,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사용됨. 액스 프린팅이라고도 한다.

<sup>(\*)2</sup> 베니스 비엔날레와 동시에 이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

시냇물이 아무리 멀리 흘러도 그 근원을 결코 잊지 않는다.  
무리우는 이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속무늬 직물을 캠퍼스 삼아  
숨은 듯 드러나는 여성의 본질을 포착했다.



MY SISTER CALLED AND I ANSWERED "사랑은 비처럼 내리는 풀을 선택하지 않는다." – 아프리카 속담  
Photography, 2024 Jet Ink Print of FineArt RAG+ Matt 310g mounted on aluminium dibond in black pre-made float frame



빛이여 흐르라, 그림자여 멈추라  
**사진 속의 찰나 - 순간**

김 용 열(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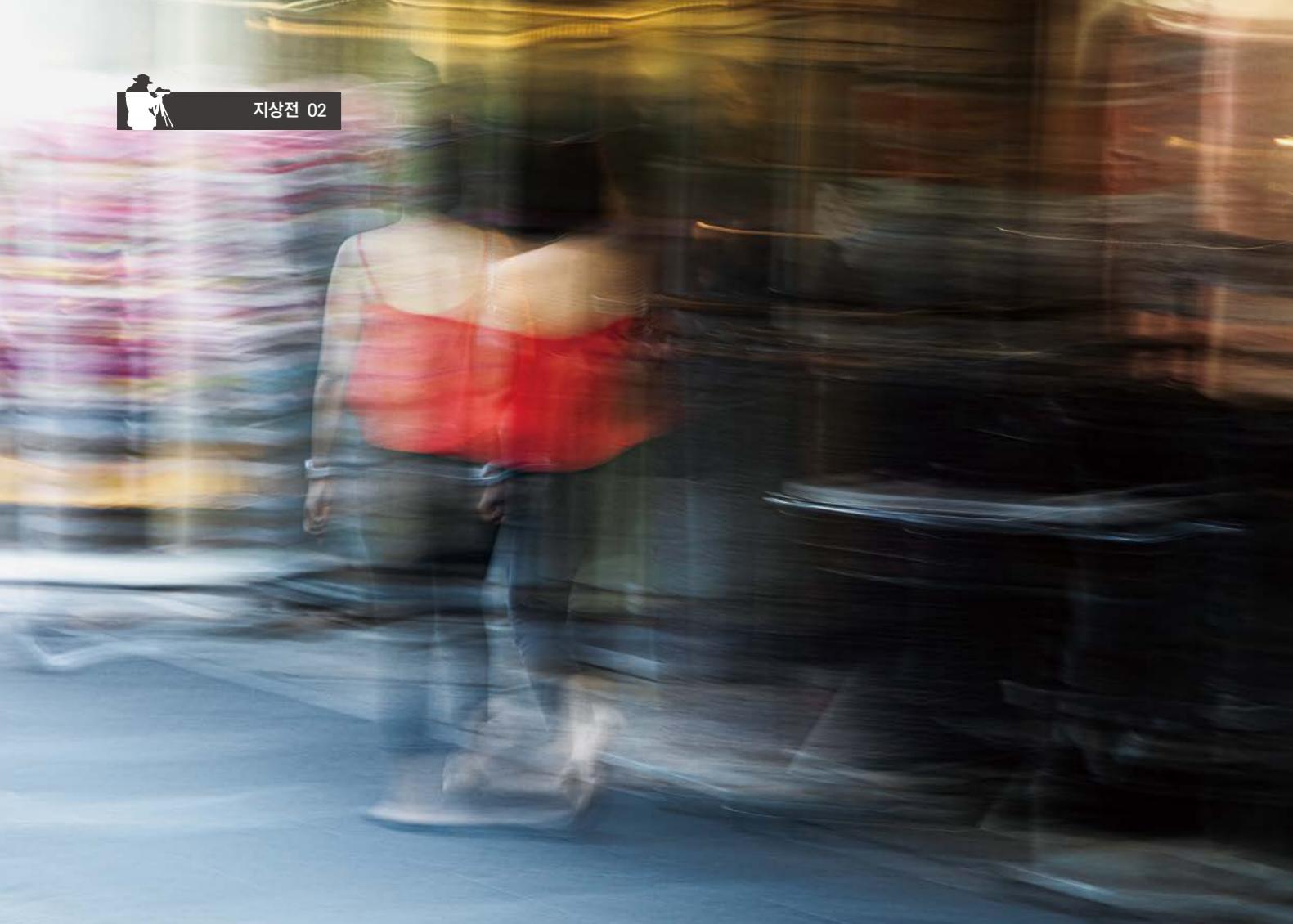


©김용열\_꿈이되는 순간

빛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그 순간을 포착해야한다.  
그렇게 잡힌 그림은 움직임이 없어 마치 박제된 사물처럼 생동감을 잃는다.  
그래서 순간을 포착하되 움직임까지 통찰하고자 했다. 그 것이 ‘사진 속의 찰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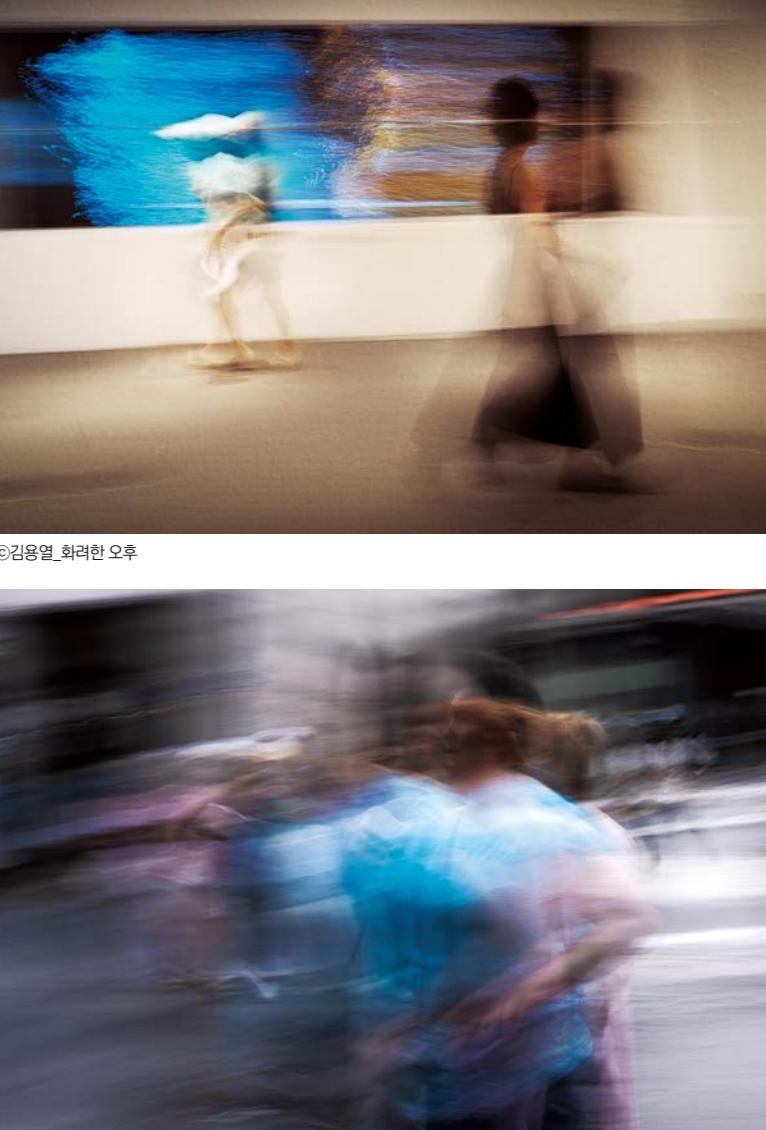
지상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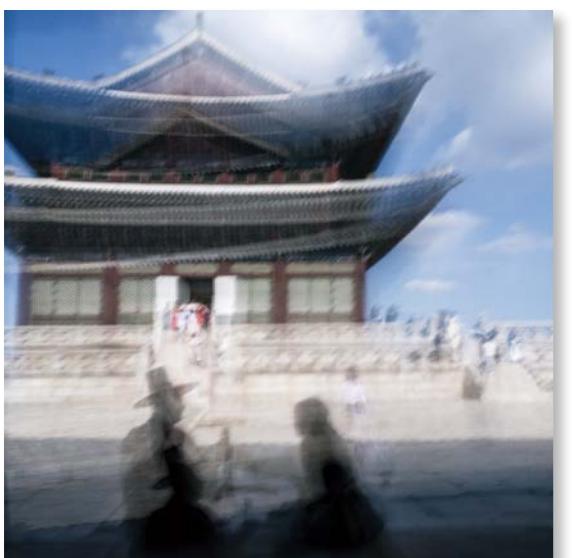
©김용열\_도시의 잔상 2



©김용열\_그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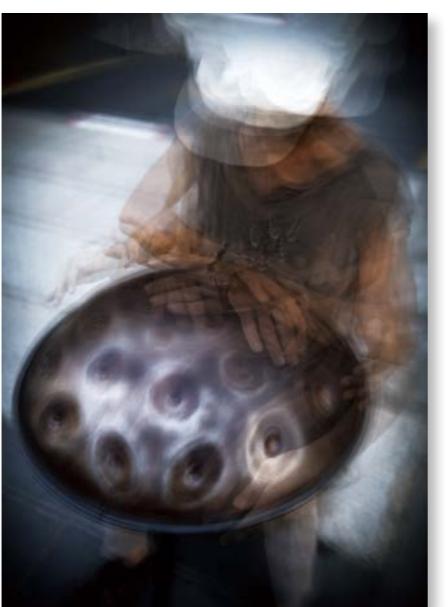
©김용열\_화려한 오후



©김용열\_왕이 있던 자리



©김용열\_정적의 끝



©김용열\_아름다운 연주

나의 사진은 흐르는 시간을 멈추기보다, 그 흐름이 남긴 응축의 흔적을 더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 속의 찰나는 고정된 현재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서로 겹침에 남긴 잔향의 표면이다. 나는 그 표면 위에 스며든 공기와 시선, 그리고 사라진 것들의 미세한 진동을 불러낸다.

도시는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통과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나의 카메라는 정지된 구조와 유동하는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응시한다. 이때 사진은 사건을 포착하는 기록이 아니라, 움직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시간의 밀도를 가시화하는 장치가 된다.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인물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감정과 호흡이 남아 있다. 나는 사진이라는 얇은 막을 통해, 그 숨결이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의 상태를 붙잡고자 한다. 그것은 존재를 붙드는 행위라기보다, 존재가 남기고 간 여운을 귀 기울여 듣는 일에 가깝다.

이 작업은 찰나를 소유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 남긴 흔적을 현재로 불러와, 사라짐 이후에도 지속되는 시간의 감각을 묻는 과정이다. 사진은 여기에서 기억과 부재, 그리고 아직 소멸되지 않은 감정이 교차하는 장소가 된다.



사라져 갈 것인가, 얼음 꽂 되어 남을 것인가

## 기억의 빙점 · Freezing Point of Memory

백 명자(대전)



©백명자\_기억의 빙점

얼음 꽂은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려는 매개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창조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미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우리는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그 인연으로 인해 잔잔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가슴 짠한 기억으로 남기도 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받은 꽃다발이 많았다 결혼 기념일, 집들이, 아이들 졸업, 수상의 영광을 받던 날. 행복하고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인생의 뒤안길로 잊혀져 가는 것이 아쉬웠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2015년부터 기억으로 봉인한 ‘얼음꽃’ 사진이 시작되었다.

내 작품에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붉은 장미의 사랑의 연가도 있고, 조카가 시집가던 날 순결한 백합의 향기도 묻어 있고, 어버이날 사랑하는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렸던 빨간 카네이션도 있다.

보내기 싫어 몸부림쳤던 가슴 시린 하얀 국화 한 송이도 있다.

친구와 산책길에서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을 한 줌 꺾어들고 친구와 나누었던 소소한 우정도 간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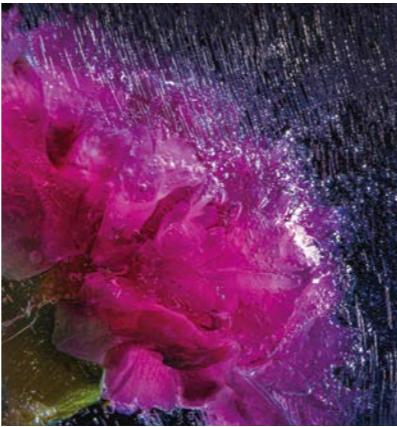
꽃다발을 받은 순간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꽃은 시들고, 포장은 벼려지고, 그날의 사건도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속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상실했는지 모두 ‘기억’ 속에서 연결된다. 기억은 그 세심한 감정들을 모두 보존하지 않지만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때의 과거는 이따금 상기되어 기억 저 아래에 잠겨있던 그리움 속에서 미묘한 거리와 침묵으로 다가와,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꼬리를 물게 한다. 이처럼 기억은 자아의 뼈대이며 존재의 시간적 윤곽을 형성한다. 꽃다발을 받은 기억은 대단한 사건도 사회적 기록도 아니지만 존재가 긍정되었다는 증거로써 남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되고 환대받았으며 의미있는 존재였다는 감각은 나를 긍정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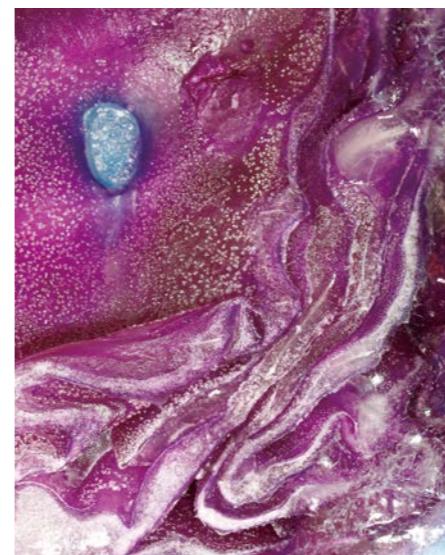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백명자\_기억의 빙점



## 루이지기리 “사진의 출발점은 새로운 시각” Infinite Landscapes

글 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Salzburg, f/11, 1/125, Natural Light series, 1977, C-print, 24x35.5cm, © Heirs of Luigi Ghirri

뮤지엄한미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함께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도쿄도사진미술관이 기획한 전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탈리아 컬러사진의 선구자 ‘루이지 기리(Luigi Ghirri 1943-1992)’의 회고전 <Infinite Landscapes>을 삼청본관에서 3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사진가인 루이지 기리의 허구와 현실의 관계에 관한 작업 세계 전반을 다룬 130여점의 작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된다.

루이지 기리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출신의 사진가로, 이 지역의 일상적 풍경을 출발점으로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사진은 정제된 색채와 관습에 얹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도, 인간적인 유머와 시적 통찰이 스며든 시선으로 일상의 시각적 아이러니와 환영적 이미지를 포착한다. 이러한 기리의 독창적 이미지 세계는 미국 중심의 현대사진 담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유럽 사진의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며, 그를 유럽 컬러사진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1970년대 개념미술 작가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사진을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니라, 프레임 안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사유의 도구’로 이해하게 되었다. 기리는 눈 앞의 장면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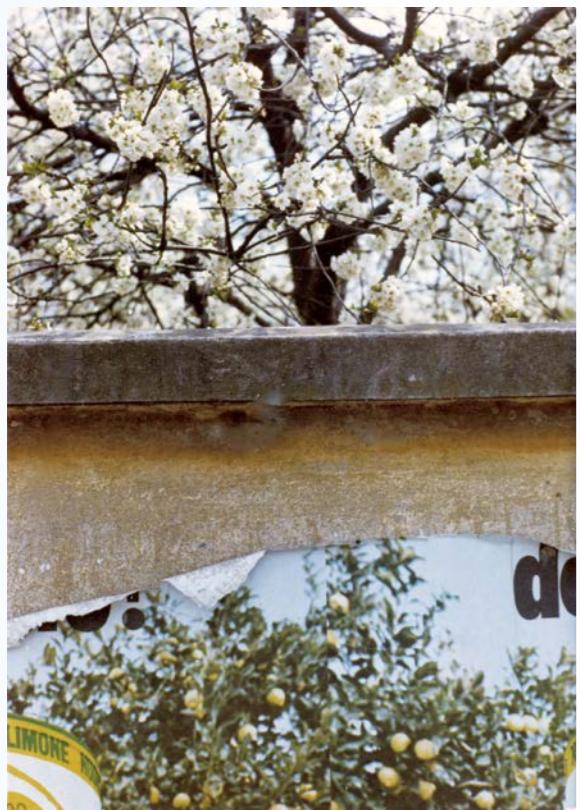
Modena, Still Life series, 1978, C-print, 36x24.6cm, © Heirs of Luigi Ghirri



Engelberg, Kodachrome series, 1972, C-print, 21.8x14cm, © Heirs of Luigi Ghirri



Bologna, f/11, 1/125, Natural Light series, 1973, C-print, 23.8x34.8cm, © Heirs of Luigi Ghirri



Modena, Kodachrome series, 1973, C-print, 20×14cm, © Heirs of Luigi Ghirri



Modena, Still Life series, 1978, C-print, 22×15cm, © Heirs of Luigi Ghirri



Grostè Refuge, Italian Landscape series, 1983, C-print, 21.5×35cm, © Heirs of Luigi Ghirri



Bologna, Studio of Giorgio Morandi series, 1989-1990, C-print, 19.5×24.2cm, © Heirs of Luigi Ghirri

로 보았으며, 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 풍경 속에서 현실과 이미지의 관계를 꾸준히 탐구하며, 존재와 부재,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넘나드는 사진적 철학을 발전시켰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말년까지 기리가 이탈리아 풍경, 공업지대의 스튜디오와 자택 내부, 미술관, 간판과 포스터 등 일상적 공간에서 포착한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그의 사유와 실험을 폭넓게 살펴본다.

전시는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사물과 이미지 1'에서는 〈Photographs from my Early Years〉와 〈Kodachrome〉 연작을 소개한다. 이 두 시리즈는 일상 속 사물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위계를 비틀며,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섹션 '사물과 이미지 2'에서는 〈f/11, 1/125, Natural Light〉와 〈Still Life〉 연작을 통해 관찰 행위의 구조와 이미지 안 요

소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어지는 '이탈리아 풍경 1'과 '이탈리아 풍경 2'는 기리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오가며 작업한 〈Italian Landscape〉 연작을 소개하며, 장소 인식과 익숙함·낯섦 사이의 경계를 다룬다. 특히, 이 섹션 안에는 기리의 작업을 함께 관찰하며 여정을 동행한 동료이자 파트너 파올라 보르곤조니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함께 보여준다. 마지막 '스튜디오 풍경'에서는 기리의 집 내부를 촬영한 〈Identikit〉 연작과 함께, 건축가 알도 로시와 화가 조르조 모란디의 스튜디오를 담은 작업을 소개한다. 기리는 집 안의 책과 음반 같은 일상 사물을 통해 부재하는 인물을 암시하는 초상을 구성했으며, 실내와 외부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평생 탐구해온 '보는 행위'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루이지 기리는 2020년도에 열화당에서 발간된 『루이지 기리의 사



진 수업』으로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탈리아 프로젝트 대학교에서 1989~1990년에 진행한 강의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진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사진가의 태도, 주제 선택, 역사, 카메라의 원리, 빛과 렌즈, 프레이밍 등 사진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핵심 요소들을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사진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는 방식’을 강조하며, 익숙한 시각적 습관에 매몰된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풍경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풍경에 속하게 되는 감각을 느낀다고 말하며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관성적 시선을 경계하고 일상의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을 제안했다.

“동시대성과 현대성은 각각의 예술 장르가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예술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드러납니다. 한 언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메커니즘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미지, 사진, 노래, 문학, 영화와 같은 장르들은 사실상 의미들이 서로 연결된 별자리와 같습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올 해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시와 발표, 공연과 도서들을 접하고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탐구해 봄으로써 넓은 시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진작업이나 새로운 작업의 준비에 필요한 ‘별자리’들을 찾아내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의 좋은 시작이 될 것임을 믿고 기원한다.



Formigine, The Outline of Clouds series, 1982, C-print, 24.2x36cm © Heirs of Luigi Ghirri



Ile Rousse, Kodachrome series, 1976, C-print, 17x27cm, © Heirs of Luigi Ghirri



별자리 사진  
기간자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 학과 납품



길을 묻는 예술에 이정표를 제시하다

# 이미지 시대의 캐논과 사진가의 역할 I

글\_배택수(본협회 상임이사, 사진평론가)

## 캐논의 의미와 구조-개념적 기초

### 1. 캐논(the Canon)이란 무엇인가?

'캐논(正典,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준)'이라는 말은 '한 시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한 기준'으로, 원래 문학·음악·신학·미술에서 등장했다. 그러므로 캐논은 단순히 '좋은 작품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축적된 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기준 체계다. 사진에서 캐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고 사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기술·미학·기호·역사·제도가 중첩된 미학적·철학적 좌표다.

### 2. 사진 캐논은 회화 캐논과 무엇이 다른가?

회화에 비해 사진의 역사는 짧다. 1839년 탄생해서 187년 된 현대적 매체이기 때문에 캐논은 20세기 초부터 빠르게,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사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매체로 사진은 봇 대신 기계(mechanism)로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이다. 기술이 바뀌면 표현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면 미학이 바뀌며, 미학이 바뀌면 캐논도 바뀐다. Ansel Adams의 존 시스템, Edward Henry Weston의 형태적 순수성 실험등의 캐논은 항상 기술적 혁신과 미학적 성취가 함께 움직여서 평가된다. 사진은 지표성을 가진다. 사진은 '거기 있었던 것'의 흔적, 역사적 증거의 무게등 실제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Robert Capa의 전쟁 사진, Dorothea Lange의 대공황 사진 같은 이미지는 실제 현실과 연결되므로 역사적 증언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사진은 사회적 기능이 강하다. 사진은 미술관에만 걸리지 않고, 보도, 기록, 감시, 마술, 광고, SNS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며, 사진 캐논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복수의 기준이 공존한다.

### 3. 사진 캐논은 왜 필요했는가?

사진은 남길 것이 너무 많다. 회화는 수백 년간 특정 계층만 생산했지만, 사진은 누구나 찍어서 생산한다. 따라서 사진사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진 중, '무엇이 중요한가' 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미지'를 선별할 기준이 필요했다. 사진은 기술 중심에서 예술 중심으로 이동해야 했다. 초창기 사진은 기록·과학·기술 영역에 머물렀다. 그래서 타 예술이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자,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진만의 예술(미학)적 기준(캐논)'이 필요했다. 캐논은 교육·전시·비평의 기준점이 된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 미술관에 걸린 사진, 여러 매체에 반복 인용되는 사진 등을 소개할 때, '그 사진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캐논이다.

### 4. 사진 캐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진가의 창작과 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프레이밍, 새로운 시점, 새로운 빛, 새로운 지표성의 확장 등이 이전에 없었던 작품을 시대적 상징으로 만든다. 평론가·큐레이터·교육자 등 제도적 권력인 MoMA 뉴욕현대미술관, Tate 영국 모던갤러리, ICP 뉴욕 국제사진 센터 같은 기관, 큐레이터, 비평가, 교육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사진인가?'를 결정해서 공식화한다. 사회적 수용과 역사적 영향력은 대중 기억 속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전쟁·재난·문화적 변화를 기록한 사진 등이 캐논의 일부가 된다.

### 5. 사진 캐논이 형성되는 방식 5요소 구조는

첫째, 기술적 완성도로 카메라, 인화, 해상도, 프레임 구성, 인화 기술, 조형 수준 등 둘째, 조형적·미학적 힘인 형태적 완결성, 구조적 질서, 시각적 리듬 등 셋째, 기호학적 밀도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그리고 의미의 이중구조(denotation/connotation) 넷째, 사회적·역사적 맥락으로 시대의 사건과 긴밀히 연결된 이미지 다섯째, 제도적 승인·비평·교육 MoMA, 국립미술관, 비평가, 학술 서, 교과서이다. 사진의 캐논은 '잘 찍힌 사진'이 아니라, 기술 위에 미학이 쌓이고, 미학 위에 의미가 생기며, 그 의미가 시대를 흔들고, 제도가 그것을 기억하기로 결정할 때 탄생한다.

### 6. 캐논의 역할이 왜 필요한가?

사진의 역사와 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새로운 사진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대표작을 통해 시대의 감수성을 읽어낼 수 있다. 신진 사진가에게 창작 동기로 방향성과 도전을 제공한다.

### 7. 사진 캐논의 특징 - 회화적 정전과 차이

회화는 캐논이 작가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사진은 이미지 중심으로 형성된다. 회화는 작가의 기술, 작가의 스타일과 개성, 작가의 역사적 위치가 중요하며, 사진은 이미지의 구조, 사진이 기록한 '현실성', 사회적 영향력이 특징이다.

### 8. 사진 캐논이 작동하는 4단계

제1단계는 생성이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으로 기술적 요인, 조형적 선택, 시점·프레임·시간이다. 제2단계 확산이다. 이미지가 퍼지는 과정으로 신문, 잡지, SNS, 전시로 사회적 영향력이다. 제3단계 승인이다. 제도적 평가로 박물관, 비평, 교육기관, 학회 등에서 인정받는 부분이다. 제4단계 전통화이다. '기준'이 되는 과정으로 후대 재평가, 반복적 인용, 교과서·전시의 편입이다.

## 제2장 이미지 시대의 전환

'사진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의 의미는 사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진은 지금도 하루에 수십억 장씩 생산된다. 문제는 사진이 더 이상 '이미지의 왕좌'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세기 이후 사진은 '현실을 빛으로 붙잡는 기술'로서 진실·기록·증거·예술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미지는 더 이상 '찍힌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이제 이미지는 생성되고, 편집되고, 추천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 전체로 규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Photo)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Image)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전환은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뜻한다. 즉, '이미지 시대'는 단순히 이미지가 많아진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뀐 시대를 말하며, 사진 이후의 이미지는 새로운 미학적 시대를 열었다.

### 1. '이미지 시대'란 무엇인가?

20세기로 들어오며 사진은 지식·정보·예술의 중심이 되었지만, 21세기 들어 이미지의 위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현대는 사진(Photo)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Image) 중심의 시대이다.

이미지 시대를 정의하자면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현실의 조건'이 되는 시대로, 전통적 사진 시대에서 이미지는 대체로 현실 이후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사진이 찍혔고, 사람이 어떤 풍경을 본 뒤 사진이 남았고, 경험이 먼저, 이미지는 그 다음 순이었다. 하지만 이미지 시대에서 이 순서는 역전이 된다.

여행은 가기 전에 이미지를 보고 기대를 설계하고, 음식은 맛보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평가되고, 정치·사회 등 이슈는 실체보다 이미지로 먼저 '믿어지고' 확산된다. 따라서 이미지 시대는 이미지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현실 경험을 조직하는 규칙이 되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非사진 이미지'가 이미지 생태계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보다 훨씬 많은 非사진 이미지 생산'으로, 이미지 생태계의 중심에는 AI 생성 이미지(사진처럼 보이지만 촬영되지 않은 것), 합성/리터칭/스타일 변환(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설계') 등이 결정적인 전환으로, 사진은 '카메라·현실·빛'이라는 사슬을 전제로 하지만, 이미지 시대의 많은 이미지는 그 사슬이 없어도 충분히 사진처럼 보인다. 결국 '사진'은 이미지의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이동을 한다.



실시간 네트워크가 이미지의 본성을 바꾸고 있다. 사진 시대에 신문, 잡지, 전시, 앨범 등이 유통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대의 유통은 ‘운반’이 아니라 ‘증식’이다. 이미지는 클릭/공유/캡처/임으로 계속 복제되고, 댓글과 해시태그가 이미지의 의미를 재작성하며, 이미지 하나가 수천 개의 맥락으로 분열된다. 그래서 이미지의 의미는 이제 ‘작가가 찍은 순간’에 고정되지 않으며, 이미지는 유통 과정에서 의미가 변형되는 존재가 된다.

‘신뢰성보다 속도’가 우선되는 시대이다. ‘이미지의 신뢰성보다 속도가 우선’으로, 이미지 시대의 윤리·미학을 동시에 관통한다. 과거에는 ‘정확한 사진 한 장’이 힘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빨리 도달한 이미지’가 승리한다. 확인은 나중에, 해명은 더 나중에, 이미지는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난 뒤다. 이때 진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되고, 자연된 진실은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미지 시대의 권력은 ‘진짜나 가짜나’보다 먼저 ‘얼마나 빨리 퍼졌느냐’로 행사된다. 이미지가 사회를 결정하는 방식은 정보·정치·감정·경제로 결정되는 바 이미지가 사회를 결정한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이다. 정보는 사람들은 글보다 이미지를 먼저 소비한다. 정치는 프레이밍된 이미지가 여론의 방향을 설계한다. 감정은 공감·분노·혐오·연민이 이미지에 의해 촉발된다. 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이미지(브랜드·룩·바이럴)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이미지 시대의 핵심은 ‘이미지가 많다’가 아니라, 이미지가 인간 판단의 기본 단위를 점유했다는데 있다.

## 2. 사진 중심 시대에서 이미지 중심 시대로 전환은 3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 제1단계는 사진 중심 시대(19세기-20세기 중반)이다.

첫째, 카메라의 독점적 위치이다. 사진의 힘은 ‘현실을 자동적으로 기록한다’는 인식에서 왔다. 사진은 인간의 손그림과 달리, 빛의 흔적으로 세계를 남긴다. 이 자동성은 사진을 예술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증거로 만들었다. 둘째, ‘진실’·‘기록’·‘재현’의 절대적 권위이다. 사진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믿음을 획득했고, 이 믿음은 사진을 사회 제도 속으로 편입시켰다. 신분증/여권/범죄 수사, 신문 보도, 과학 기록, 전쟁 기록 같이 사진은 ‘보는 것’을 넘어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셋째, 보도사진·다큐멘터리·예술사진의 확립이다. 이 시기 사진은 장르로 분화하면서도 공통의 토대를 유지했다. 그 토대가 바로 지표성(현실과의 물리적 연결)이다. 즉, 무엇을 어떻게 찍든,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사진의 권위를 떠받쳤다.

### 제2단계는 대중 이미지 시대(20세기 후반~2000년대)이다.

첫째 TV 이미지 중심의 시대로 사진이 ‘정지된 증거’라면, TV는 ‘흐르는 현실’처럼 작동했다. 이때부터 이미지의 주된 기능은 ‘증명’보다 설득과 감정 동원으로 이동한다. 광고는 이미지로 욕망을 만들고, 뉴스는 이미지로 사건을 편집한다. 둘째, 이미지가 자본주의 감성의 언어로 변환된다. 대중 이미지 시대의 핵심은, 이미지가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만드는 장치가 되었다는 점이다. 멋져 보이게, 갖고 싶게, 부러워하게, 동경하도록 이미지는 감정의 문법으로 사회를 움직인다. 셋째, 사진의 자리 변화로 ‘기록’에서 ‘스타일’로 이 시기 사진은 기록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패션·광고·뮤직비디오·잡지 문화 속에서 스타일의 언어가 된다. 사진은 이미지를 생산하지만, 이미지는 더 이상 사진만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 제3단계는 데이터 이미지 시대(2020년 이후)이다.

첫째, 스마트폰/SNS/AI가 생산·유통·소비의 동시화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동시성’으로, 찍는 순간 업로드되고, 업로드되는 순간 반응이 달리고, 반응이 곧바로 다음 생산의 기준이 된다. 이미지는 더 이상 ‘완성된 작품’으로 존재하기보다, 반응을 얻기 위한 흐름으로 존재한다. 둘째, 이미지의 목적 변화이다. 증명 → 기록 → 소통 → 조작 → 예측으로 이 전개는 이미지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다. 증명은 ‘이 일이 있었다.’ 기록은 ‘이 시간을 남긴다.’ 소통은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조작은 ‘나는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예측은 ‘데이터가 다음 행동을 유도한다.’ 여기서 ‘예측’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지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 행동을 설계하는 인터페이스가 된다. 셋째, 지표성 약화와 ‘실감 나는 허구’의 확산이다. AI 이미지와 딥페이크가 문제인 이유는 단지 ‘가짜’여서가 아니다. 그들은 사진의 신뢰 구조를 재설계하기 때문으로,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이 장면이 실제로 존재했는가?’가 아니라, ‘이 장면이 그럴듯한가?’, ‘이 장면이 내 감정을 움직였는가?’로 이미지는 ‘사실’과 ‘실감’ 사이에서 실감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찍힌 것(photographed)’에서 ‘생성된 것(generated)’으로 사진은 현실을 ‘채집’하지만, 생성 이미지는 현실을 ‘설계’한다. 채집의 미학에서 설계의 미학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이미지 시대의 본질이다. 이미지 시대 전환은 진짜보다 ‘실감 나는 허구’가 더 확산되었는데, 이제 이미지는 ‘찍힌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으로 이동했다.

## 3. 이미지 시대의 6가지 큰 변화

사진 기호학·미학·철학의 관점과 언어에서 보면 다음의 6가지 변화가 결정적이다.

### 첫째 변화는 지표성의 붕괴이다.

카메라가 찍지 않은 이미지가 ‘사진처럼 보이는’ 시대로, 딥페이크, AI 생성 이미지로 인해 지표성은 이미지의 기본 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지표성이란 무엇인가? 지표성(indexicality)은 ‘이미지가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성질이다. 전통 사진의 핵심은 ‘빛이 대상에서 반사되어 감광 재료에 흔적으로 남는다’는 연결이다. 이 연결이 있을 때, 사진은 강력한 사회적 문장으로 작동한다. 지표성 붕괴가 의미하는 것은 AI 생성 이미지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촬영되지 않았다. 여기서 지표성이 붕괴한다는 말은 사진이 사라진다 → X, 사진도 여전히 지표성을 가진다 → O, 그러나 이미지 전체의 기본 조건이 지표성이 아니게 된다 → O 즉, 사진의 특성이 ‘이미지의 규칙’이었던 시대에서 사진의 특성이 ‘이미지 중 한 갈래의 규칙’이 되는 시대다.

사회적 결과는 증거 체계의 재편이다. 지표성이 약화되면, 사회는 더 이상 이미지 한장을 즉시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진실성’은 출처(누가 올렸는가), 메타데이터(언제/어디서), 검증 경로(원본, 기록, 다중 출처), 생성 여부(조작 흔적, 합성 구조)와 같이 이미지 내부가 아니라 이미지 외부에서 판단된다. 이때 사진은 ‘진실’이라기보다 검증 절차의 일부가 된다.

### 둘째, 현실보다 ‘이미지 경험’이 우선한다.

풍경보다 풍경 사진을 먼저 떠올리는 시대, 음식보다 음식 사진이 먼저 소비되는 시대, 이미지가 경험을 결정한다. 경험의 선행 조건이 이미지가 되다. 과거는 경험 → 이미지(기억/기록), 현재는 이미지(예상/욕망) → 경험(재현/인증) 예를 들어 여행은 이제 ‘가 보는 것’이 아니라 ‘찍어 올리는 것’이 되기 쉽다. 사람들은 ‘현장’보다 ‘업로드 가능한 장면’을 찾고, 그 장면은 다시 다른 사람의 여행을 규정한다. 현실이 이미지의 원본이 아니라, 현실이 이미지의 복제처럼 살아진다.

사진의 자리이다. 기억 장치에서 인증 장치로 이미지 시대에서 사진은 ‘추억’이면서 동시에 ‘증명’이다. 내가 거기 갔다는 증명,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증명,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진다는 증명 등으로 이때 사진은 내면을 기록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 속에서 나를 구

성하는 장치가 된다.

### 셋째, 이미지는 곧 상품화된 감정이다.

‘좋아요’ 구조가 만드는 감정 시장이다. SNS에서 이미지는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반응(좋아요/공유/댓글)을 만들며, 반응은 노출을 늘린다. 이 순환 속에서 이미지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상품’이 된다. 감정의 공급은 위로, 힐링, 감탄, 자극, 비교이다. 경쟁은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이미지로 비교이다. 욕망의 판매는 아름다움, 부, 젊음, 성공의 이미지이다.

미학적 결과는 아름다움의 표준화이다. 감정 상품의 시장에서는 ‘새로움’보다 ‘즉시 반응’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미지는 빠르게 이해되는 아름다움, 즉 표준화된 미감으로 수렴한다. 이것이 이미지 시대의 역설이다.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이미지의 스타일은 알고리즘과 시장 논리 속에서 점점 비슷해지기 쉽다.

### 넷째, 속도의 미학이다.

진실보다 속도가 가치가 되는 구조이다. 이미지 시대의 미학은 ‘정교함’보다 ‘즉시성’을 선호한다. 가장 빨리 도달한 이미지가 ‘그 사건의 얼굴’이 되는데, 이때 이미지의 임무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첫인상 선점이다. 사진가에게 생기는 문제는 사진가(작가)의 리듬은 보통 느리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편집하고, 인화하고, 맥락을 설계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리듬은 빠르다. 즉, 이미지 시대에서 사진가는 ‘느림의 미학’을 어떻게 방어하거나, 혹은 ‘속도와 타협’할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 다섯째, 알고리즘이 이미지 흐름을 규정이다.

선택권의 이동은 인간 → 추천 시스템이다. 이미지 시대의 결정적 변화는 ‘누가 무엇을 보게 하는가?’다. 과거에는 편집자, 큐레이터, 방송국이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추천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한다. 즉, 이미지 경험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취향의 경로를 따라 형성된다.

미학적 결과는 알고리즘 친화적 형식의 강화이다. 알고리즘은 보통 다음을 선호한다. 빠른 이해(한눈에 읽힘), 강한 대비(스크롤을 멈추게 함), 반복 가능한 포맷(밈, 챌린지, 유사 구도), 반응을 유발하는 감정(분노/놀람/감탄) 등으로, 이때 이미지의 형식은 ‘작가의 미학’뿐 아니라 ‘플랫폼의 문법’에 의해 결정된다.

### 여섯째, 이미지의 주체 변화이다.

사진가에서 사용자로 변화이다. 사진의 시대에는 ‘사진가(작가)’가



이미지 생산의 중심이었다. 이미지 시대에는 '사용자(User)'가 중심이 되며, 더 나아가 AI가 생산에 개입한다. 저자의 봉고와 협업적 생산의 변화이다. 이미지는 이제 촬영자(사용자), 편집자(앱/필터), 유통자(플랫폼), 재가공자(임 제작자), 생성자(AI)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 된다. 따라서 '한 장의 이미지'에는 단일 저자가 아니라 복수의 주체가 들어간다. 이 변화는 사진의 저작권, 책임, 윤리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이미지 생산자는 더 이상 사람만이 아니고, 이미지는 인간의 독점적 도구가 아니다.

#### 4. 이미지 시대가 '캐논'에 미치는 영향

캐논(canon)은 사진이 예술적·사회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합의하고 형성한 '장기적 미학 구조'이다. 캐논은 무엇이 '좋은 사진/좋은 이미지'인가?, 무엇이 의미 있고, 남을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후대의 기준이 되는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미지 시대에는 캐논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 사진 중심의 캐논이 흔들려서 봉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진 캐논은 지표성에 크게 기대어 왔다. 그런데 사진의 지표성이 약화되면서 '사진다움'의 기준이 흔들린다. 즉 '현실과 연결된 흔적'이라는 특성이 사진을 예술과 사회의 핵심 기록 매체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지 시대에는 지표성이 이미지의 기본 조건이 아니므로, 사진 캐논의 핵심 전제 '사진은 현실의 흔적이다'가 보편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

**둘째, 이미지 기반의 새로운 캐논 등장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이제 캐논은 사진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미지 시대의 캐논은 사진만이 아니라 생성 이미지, 데이터 시각화, 네트워크 이미지(임/리믹스), 실시간 스트림/스크린 기반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때 기준은 '얼마나 현실에 달아 있는가?'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로 이동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사회적 감정을 조직하는가? 어떤 이미지가 현실 인식을 바꾸는가? 어떤 이미지가 권력의 시선을 드러내는가? 어떤 이미지가 데이터/알고리즘의 구조를 폭로하는가? 같은 질문이 캐논의 기준이 된다.

**셋째, 역사적 기준보다 '네트워크 기준'이 강화된다.**  
이미지 시대의 캐논은 역사학적 축적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의 조건이 캐논을 즉시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바이럴성,

재생산 가능성, 알고리즘 적합성, 미디어 소비의 속도 등의 새로운 조건들이 캐논의 기준이 된다. 이런 건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이미지 시대에는 '오래 두고 볼 가치'와 '지금 즉시 퍼질 가치'가 충돌한다. 사진가와 큐레이터는 이 충돌을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충돌 속에서 새로운 캐논의 윤리를 세워야 한다.

#### 넷째, 사진가의 역할 재정이 필요다.

따라서 사진가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다. 이미지 시대의 사진가는 기호학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읽고, 플랫폼/알고리즘 구조를 이해하며, 데이터와 윤리를 함께 다루는 이미지의 책임을 지는 '해석자'로 변환되어야 한다.

#### 5. 이미지 시대의 '진실성' 재구성

이미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진의 지표성 봉고로 인해 진실성과 신뢰의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첫째, 과거의 진실성은 "빛이 필름에 달은 흔적 = 진실" 사진의 진실성은 물리학적 연결에서 왔다.** 물론 사진도 조작될 수 있었지만, 대체로 사회는 사진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사진은 법정에서, 뉴스에서, 역사 기록에서 힘을 가졌다.

**둘째, 현재의 진실성은 "이미지의 맥락·출처·알고리즘·데이터 구조 = 진실 판단의 기준"이다.** 이미지 시대의 진실성은 이제 이미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성립한다.

맥락 :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출처 : 누가 만들고 유통했는가? 검증 경로 : 다른 자료와 교차 확인되는가?  
알고리즘 조건 : 왜 내게 이 이미지가 도달했는가? 데이터 구조 : 편집/생성/합성의 흔적은 무엇인가?  
즉, 진실성은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둘러싼 네트워크 전체의 문제가 된다.

#### 셋째, 진실성의 윤리는 '보는 책임'의 확대이다.

이미지 시대에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책임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공유는 곧 유통이며, 유통은 곧 영향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세계에 힘을 행사하는 참여가 된다.

즉, 이미지 시대에는 진실성 또한 기호학적·데이터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하다.

#### 6. 이미지 시대의 캐논 : 새로운 원칙의 필요

이제 더 이상 Ansel Adams, Weston, Capa와 같은 전통적 '사진 캐논'만으로는 이미지 시대를 설명할 수 없다.

**첫째, 전통적 사진 캐논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Ansel Adams, Weston, Capa 같은 전통 캐논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강력하다. 다만 그 캐논만으로는 AI 생성 이미지, 데이터 기반 시각문화, 플랫폼 중심 유통, 알고리즘 추천 구조, 이미지 조작의 일상화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새로운 캐논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지 시대의 캐논은 다음 질문을 중심으로 재작성되어야 한다.**

이 이미지는 무엇을 '진실'로 보이게 하는가? 이 이미지는 어떤 감정 구조를 설계하는가? 이 이미지는 어떤 권력/시선을 은폐하거나 드러내는가? 이 이미지는 어떤 데이터/알고리즘을 전제로 하는가? 이 이미지는 현실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이미지는 책임(윤리)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이 질문들은 사진의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캐논은 미학+기호학+윤리+기술 이해가 결합된 형태가 된다. 이미지 시대의 캐논은 '이미지가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 7. 사진가는 어떤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미지 시대에서 사진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하면 사진가는 단순 '창작자'가 아니라 '이미지 시대의 해석자'로 진화해야 한다.

**첫째, 기술 이해 : AI/데이터/알고리즘을 '도구'가 아니라 '환경'으로 보기이다.** 사진가가 AI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I가 이미지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 있으므로, 사진가는 그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생성 이미지의 원리(획률/학습/합성), 데이터가 시선을 규정하는 방식(추천/랭킹/노출), 이미지가 어떤 포맷에서 유리한지(플랫폼 문법) 등의 이해는 "기술자 되기"가 아니라 시대의 문법을 읽기 위함이다.

**둘째, 기호학적 해석 능력 : 이미지의 의미가 '유통'에서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미지 시대에서 의미는 촬영 순간에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가는 이미지가 어떤 해석을 유발하는지, 어떤 오독이 가능

한지, 어떤 프레임으로 소비될지 까지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사진가가 '설명문을 잘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생성하는 기호 효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윤리적 책임 :** '진실성의 설계'이다. 사진가는 더 이상 '나는 찍었으니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 대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편집을 했고,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미지 시대의 작가는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책임을 함께 다루는 존재가 된다.

**넷째, 감정 구조 설계 :** 감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읽기이다. 이미지 시대에는 감정이 쉽게 상품화된다. 사진가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 생산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분노를 이용하기보다 분노의 구조를 보여주기, 슬픔을 팔기보다 슬픔이 유통되는 방식을 드러내기, 욕망을 부추기기보다 욕망의 메커니즘을 해체하기 등의 태도는 이미지 시대의 미학적 저항이기도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 감각 :** 작품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사고하기이다. 이미지 시대에서 작품은 고립된 물건이 아니라 공유, 리믹스, 캡처, 재유통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사진가는 전시만이 아니라 온라인/아카이브/메타데이터/시퀀스(연작 구성)까지 포함해 작품의 생애를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속도의 미학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속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속도에 종속될 필요도 없다. 가능한 전략은 두 가지다. 속도에 탑승 : 빠른 반응을 활용하되, 해석과 맥락을 함께 제공, 속도를 거부 : 느림의 미학을 극대화하고, 깊이의 가치를 확립 둘 중 어느 쪽이든 핵심은 '무작정 따라가기'가 아니라 자기 리듬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곱째, 이미지 주권(image sovereignty)의 확립이다.** 이미지 주권은 단지 저작권이 아니다. 내 이미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재가공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최소한 인지하는 능력이다. 이는 사진가에게 새로운 생존 조건이 된다.

#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예술을 한다 21세기의 노예 해방

글·사진제공\_최승언



대량생산을 기다리는 유머노이드 로봇



인간 노예가 일하고 노예주인은 문화생활을 누렸다.



인간노예는 더이상 필요없어질 것이다.



흑인 노예의 참상

2040년 2월 어느날 오전 7시, '지훈'은 창밖의 새소리와 은은한 숲 향기에 잠을 깬다.

문밖에 풀에서 수영하고 사위를 마치자 오늘 아침 메뉴로 신선한 샐러드와 호밀 빵을 세팅되어 있다. 10년째 아침 메뉴를 만들어 주고 있는 로봇팔은 한번도 지훈의 입맛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식사를 마친 지훈은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로 향한다. 축구 코칭 로봇 '메시-V9'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로봇이 정확히 시간에 맞추어 지훈을 센터에 데려다 주었다.

과거에는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었던 국가대표급 레슨인데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류의 최고 수준의 교육은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훈은 로봇 코치의 정교한 가이드에 따라 슛 동작을 교정하며 땀을

흘렸다. 오후 시간이 되자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시립 정원으로 향한다. 로봇들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이 공원은 언제가도 새로운 촬영 소재가 있는 곳이다.

지훈은 이곳에서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 지구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시립공원에 두루미의 적정 개체 수"이다.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인류의 관심은 이제 자연 생태 회복이나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토론을 마치고 지훈은 저녁에 있을 친구들과의 파티를 위해 로봇이 생산한 고급 와인 두 병을 5천원에 주문한다. 비쌌던 와인이 로봇의 등장으로 음료수 수준으로 낮아진 지 오래다. 로봇생산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매달 입금되는 기본소득'이 250만원인데 지훈 전자 지갑에 1천만원 정도가 쌓여있는 것도 물

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로봇이 창출한 부에 대해 기업이 지불한 '로봇세'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것은 벌써 6년째이다. 이 꿈 같은 얘기가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전환과 노동의 효율화 과정 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의 정점, 즉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등장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류가 수만 년간 짚어져 온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명예를 벗어던지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는 이제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인간의 팔과 다리가 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

를 보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목전의 현실이다.

인류 문명의 찬란한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늘 '유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의 승리자가 패배자를 노예로 삼았던 야만의 시대, 지배층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철학과 예술, 과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대신해 땀 흘리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예속을 전제로 했고, 그 결과로 죽적된 부와 권력은 인류 문명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희생의 대상이 인간에서 기계로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인간 노예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똑똑한 로봇이 대체할 예정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윤리적 결함이 없는 '최고의 노예'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제 축복이다.

인간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뛰어나면서도 파업도, 노동쟁의도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산업 로봇



모든 분야에서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전쟁용 로봇. 미래에는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부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농기계

없이 24시간 묵묵히 일하는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모든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것이다. 그들은 월급을 요구하지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그저 인간을 위해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의류를 지으며, 안락한 주택을 건설한다. 이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재화는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정작 그것을 생산한 로봇은 재화를 소유하려 하거나 거주하려는 욕심이 전혀 없다. 생산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완벽히 분리되는 이 구조야말로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노동 해방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미련하게도 자신의 직업이 로봇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한다.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돌이켜보라. 매일 아침 숨 막히는 '콩나물시루' 지하철에 몸을 신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짜증과 피로 속에 삶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로봇의 등장은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생존 경

쟁과 출근 전쟁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면 소득이 없어 소비를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될 문제다. 로봇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기업이 로봇을 이용해 엄청난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면 기업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로봇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준 국민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가져온 소득이 있어야 로봇이 생산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가 선순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류는 마침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실현의 시대로 진입한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으니 전쟁할 이유도 없어진다. 인간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세계의 비경을 찾아 여행을 떠나거나, 국가 대표 선수급의 실력을 갖춘 로봇 코치에게 개인 레슨을 받으며 축구를 배우고 악기를 배워 연주하고, 수영과 골프를 즐기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이러한 삶이 소수 특권 층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된다. 더 나아가 인류가 이룬 문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지적인 활동에 온 에너지를 쏟으며 진정한 진보를 일궈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봇 투입을 반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로봇이 모든 생산 현장에 하루빨리 투입되기를 돋는 것이 인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은 인류를 다시 과거의 고된 노동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름없다. 로봇은 인류의 적이 아니라, 인류를 비참한 노동의 굴레에서 구해낼 것이다.

로봇 노예의 현신 위에 세워질 인류의 유토피아는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다가올 풍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과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기심이다. 로봇이 생산하고 인간은 누리는 시대, 그것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우리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야 한다. 노동하는 기계에서 사유하고 유희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그 위대한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 기업의 노조가 생산 현장에 로봇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는 마치 기계화로 농부가 사라지고 있으니 기계 투입을 막자는 얘기처럼 들린다. 기계가 뼈 빠지게 일하는 농부들을 해방시켰는데 오히려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하루 속히 로봇 노동자들이 인간 노동을 대신하도록 해야 할 때가 지금임이 분명하다.

# 2025년 6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6년 1월 22일(목) 오후 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4명, 출석 58명, 위임 19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최자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김동철,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상태, 김서윤, 김재업, 김철수, 김준도, 김학연, 도성만, 박경서, 박만석,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박해섭, 백승의, 설병갑, 손병호,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윤보상, 이내교, 이막래,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종석, 이호규,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최복수,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하봉걸, 황의출, 한용상 이사

위 임 : 김양호, 김영록, 김옥진, 김문정, 김정금, 문금영, 서진중, 오명숙, 우기꾼, 우숙자, 이명수, 이상영, 이재수, 이점용, 이청훈, 전태만, 최성용, 한재원, 한희동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감사

## 1. 성원 보고 - 총원 84명 중 출석 58명, 위임 19명으로 성원

##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 3. 전자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김화연, 이연숙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 4. 안건

## 1) 이사 보선의 건 - 승인

- 성명 : 이호규 (대구지회장) - 입회일 : 1995년 11월 18일

## 2) 2025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외부 회계감사 주요 의견〉

한국사진작가협회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회비 및 기타 미수금의 대손상각 기준 명확화 필요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회비 미수금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대손상 각 처리하고, 그 기준과 절차(이사회·총회 보고 포함)를 정관 또는 회 계 처리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

## 2. 장기 가수금 정리 필요

장기 가수금 중 반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잡이 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과보고】

- 2025. 12. 04. ~ 07.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2026. 01. 14. ~ 20. 제6회 사진예술대학 기획 전시
- 2026. 01. 17.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 2026. 01. 20. 문화상 심의, 회원전 심사
- 2026. 01. 21. 행정감사

감사 보고서			
1. 감사 실시 현황			
- 병위 : 한국사진작가협회 2025년도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			
- 일정 : 회계감사 26년 1월 17일(토) / 행정감사 26년 1월 21일(수)			
- 비고 :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진행			
2. 감사결과 보고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제1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2025년 회계 및 행정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및 성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회계 감사 보고서 의견 및 자료 검토 결과와 통상적인 사단법인의 관리 수준을 넘어서 사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며 재정 긴장을 높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적립하지 않았던 직원 회직급여에 대해 회직 연금으로 변경하여, 전액 정산하였음에도 측지 재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최근 3년 직원 인건비 상승이 매우 척趺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혹은 통상적 임금 상승에 준하는 급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장의 대외 활동 및 대관 업무 확대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 지급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각 지회, 지부 인증비 미수금과 업체의 광고 미수금에 대해 계속 통지하고, 추후 납부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 사항을 검토 바랍니다.			
- 이사회는 A 관련 교육 및 신규 사업추진 등을 통해 미래 계획의 수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감사 이경래 (인)			
이덕만 (인)			
공병철 (인)			

## ■ 2025년 예산 대 실적 ■

(2025.12.31현재)

단위:천원

구분	과목	수 입			달성비
		예산	실적	증감	
회	회비 1(일반)	550,000	472,150	77,850	85.85%
회	회비 2(예비)	10,000	6,240	3,760	62.40%
비	입회비	100,000	90,300	9,700	90.30%
	계	660,000	568,690	91,310	86.17%

## ■ 2025년 예산 대 실적 ■

(2025.12.31현재)

단위:천원

구분	과목	지 출			집행비
		예산	실적	증감	
인	급료	280,000	206,862	73,138	73.88%
인	성과급	25,000	17,573	7,427	70.29%
건	제수당	20,000	4,380	15,620	21.90%
건	퇴직급여	25,000	106,508	-	81,508
	계	350,000	335,323	14,677	95.81%

구분	과목	수 입			달성비
		예산	실적	증감	
협	대한민국사진대전	10,000	37,000	-	370.00%
협	초대작가회 전조금	10,000	10,000	-	100.00%
장	회원전 협찬	5,000	5,000	0.00%	
장	한국사진회보발행	450,000	422,290	27,710	93.84%
장	임원워크샵	20,000	20,000	0.00%	
장	사진축전 & 아트페어	150,000	100,000	50,000	66.67%
장	네너등재협찬금	20,000	4,900	15,100	24.50%
	계	665,000	574,190	90,810	86.34%

구분	과목	지 출			집행비
		예산	실적	증감	
운	급료	280,000	206,862	73,138	73.88%
운	성과급	25,000	17,573	7,427	70.29%
운	제수당	20,000	4,380	15,620	21.90%
운	퇴직급여	25,000	106,508	-	81,508
	계	350,000	335,323	14,677	95.81%

구분	과목	수 입			달성비
		예산	실적	증감	
사	대한민국사진대전	60,000	62,000	-	103.33%
사	국제사진 공모전	20,000	15,034	4,966	75.17%
업	사진축전 & 아트페어	270,000	253,034	16,966	93.72%
업	회원전	60,000	51,530	8,470	85.88%
수	서울사진촬영대회	34,000	28,012	5,988	82.39%
수	촬영지도자 연수(보수)	40,000	78,600	-	196.50%
수	청소년 사진전	20,000	20,000	0.00%	
수	사진 아카데미동 교육	400,000	356,800	43,200	89.20%
수	임원워크샵	30,000	30,000	0.00%	
수	대한민국사진대전 도록 판매	30,000	17,150	12,850	57.17%
수	지도자(감사)보수교육	40,000	54,000	-	135.00%
수	심사자격자보수교육	60,000	18,600	41,400	31.00%
수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20,000		20,000	0.00%
	계	1,084,000	934,760	149,240	86.23%

구분	과목	지 출			집행비
예산	실적	증감			


<tbl\_r cells="3" ix="2" maxcspan="1" maxrspan="1

## 2)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 승인

## 2026년 예산(안)

단위 : 천원

2026년 사업계획(안)	
행사명	시기
월간 한국사진 발행	2026년 연중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발전기금 조성	2026년 연중
전국사진강좌 개최	2026년 연중
회원증 발행	2026년 연중
지회·지부 설립	2026년 연중
행정 전산화(업그레이드)	2026년 연중
제44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및 전시	2026년 4월 ~ 6월
제63회 회원작품지상전 작품집 발행	2026년 4월
임원(이사, 지회지부장)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2026년 상반기 중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2026년 상반기 중
교육전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	2026년 상반기
분과위원장단 회의	2026년 상반기
사진예술대학 제6기 작가과정	2026년 3월 ~ 12월
사진예술대학 단과과정	2026년 4월 ~ 12월
제11회 대한민국사진축전	2026년 12월
심사자격자 세미나	2026년 연중
2026 장학금 재단 설립 및 선발 수여	2026년 9월 ~ 11월
제4회 한국청소년사진제	2026년 7월 ~ 11월
2026 AI 사진공모전	2026년 7월 ~ 11월
서울신록사진 촬영대회	2026년 5월
2026 FIAP KOREA 국제사진전	2026년 하반기
인터넷방송 및 교육기관 창립	2026년 연중
2026 PASK AWARDS	2026년 6월
원로자문위원 포상	2026년 연중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위원회 전시	2026년 연중

수 입		지 출			
구 분	과 목	예산액	구 분	과 목	예산액
회 비	회비 1(일반)	400,000	인 건 비	급료	250,000
	회비 2(예비)	5,000		성과급	20,000
	입회비	90,000		제수당	10,000
	계 (A)	495,000		퇴직급여충당금	25,000
협 찬 금	대한민국사진대전	10,000	운 영 비	계 (a)	305,000
	초대작가회 협찬금	10,000		복리후생비	30,000
	회원전 협찬	5,000		경조비	30,000
	한국사진 회보발행	450,000		집기비품비	10,000
	임원 직무향상 워크숍	10,000		여비교통비	15,000
	사진축전 & 아트페어	150,000		제세공과금	10,000
	베너 협찬금	10,000		통신비	20,000
	외부기관	5,000		업무추진비	20,000
	사진축전 협찬	10,000		판공비	10,000
	기업 협찬	30,000		소모품비	15,000
	계 (B)	690,000		회의비(임원 및 각위원회)	30,000
	대한민국사진대전 공모	60,000		사무실관리비	45,000
사 업 비	한사전 전시. PASK AWADRs	40,000		지급수수료	30,000
	국제사진 공모전	15,000		인쇄비	5,000
	사진축전 & 아트페어	250,000		홈페이지관리비	10,000
	회원전	50,000		잡비	5,000
	서울촬영대회	30,000		계 (b)	285,000
	사진아카데미 외 교육과정	400,000		대한민국사진대전	80,000
	임원 워크숍	20,000		운영자문위원회의비	10,000
	대한민국사진대전 도록 판매	20,000		사진축전 및 아트페어	340,000
	지도자(강사)보수교육	20,000		국제사진 공모전	10,000
	심사자격자 세미나	50,000		회원작품집발행	60,000
	계 (C)	955,000		심사자격자 세미나	40,000
기 타	잡이익 (복권회비 포함)	30,000		자문위원 포상	20,000
	계 (D)	30,000		사진강사비(단과)	40,000
총 계 (Z)=(A)+(B)+(C)+(D)		2,170,000	사 업 비	2026년 PASK-AWARD	20,000
				임원 직무향상 워크숍	30,000
				지부지원금	130,000
				창작지원금	10,000
				초대작가전시 및 작품집제작	25,000
				회보발행비 및 우편료	450,000
				청소년사진제	10,000
				AI 이미지 콘테스트	10,000
				행정전산화 업그레이드	10,000
				아카데미교육(전시.도록.교육비)	200,000
				교육시설유지비	10,000
				우수분과지원금	15,000
				사진인의 날 행사	30,000
				인터넷방송운영비	20,000
				계 (c)	1,570,000
기 타	잡손실	10,000		계 (d)	10,000
	계 (d)	10,000		총계 (Y)=(A)+(B)+(C)+(D)	2,170,000

## 4) 제65차 정기총회 개최 및 부의 안건 심의 건 – 승인

- 일 시 : 2026년 2월 28일(토) 13시
-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
- 대 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정, 준회원
- 안 건 : ① 감사보고 및 2025년 결산 승인의 건  
②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③ 대손상각 처리의 건  
④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의  
승인의 건  
⑤ 기타의 건

##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전	개정 후
<b>제2조(운용위원회)</b> 기금 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에 관련한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2021.11.04. 개정)	<b>제2조(운용위원회)</b> 좌동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기금의 모금 및 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좌동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좌동
<b>제5조(운용)</b> 기금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취득 (2018.01.25. 개정)	<b>제5조(운용)</b> 좌동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임차 및 취득 ② 장학기금의 출자 ③ 회원복지사업 ④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 .
<b>제7조(운용수익의 사용)</b>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금운용의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장학사업 1. 회원 및 회원 자녀의 사진전공 관련 학자금지원 2. 우수한 사진관련 전공자의 학자금지원 ② 회원복지사업 ③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2018.01.25 개정)	<b>제7조 폐기</b> (2024.11.21)  - 제5조와 병합 -
<b>제9조(홍보 및 보고)</b>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 한국사진 "에 매월 공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8.01.25 개정)	<b>제9조(홍보 및 보고)</b>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한국사진"에 매 월 공고해야 한다. (2026.01.22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3.10.16. 신설)	
2. 총회 승인일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및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1. 제안 배경**

- 협회는 사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집행하고, 현재 약 3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 적립
- 그러나 현행 구조는 협회 내부 기금 운용에 기반한 방식으로, 장학사업의 지속성·안정성·대외 확장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이에 장학사업을 협회의 핵심 공익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

- ① 발전기금의 합리적 활용
  - 현재 발전기금은 주로 적립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목적사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음
  - 장학재단 설립은 발전기금을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닌 협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임.
  - 발전기금을 소모하는 결정이 아니라 제도화된 공익사업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적 활용
- ② 장학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대
  - 협회 내부 기금에 의존한 장학사업은 예산 상황이나 집행 여건에 따라 연속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장학사업을 연례 예산 편성과 분리된 독립적·지속적 구조로 운영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장학사업을 선택적 사업이 아닌 협회의 상시적 핵심 사업으로 격상할 수 있음
- ③ 협회 대외 인지도 및 공공성 제고
  - 장학재단은 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외부에 명확히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
  - 대학 사진 관련 학과, 기업,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재단 법인 구조는 협회 단독 사업보다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임
  - 특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업 기부 및 외부 후원 유치가 가능해져 협회의 대외 인지도와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

**3. 재원 조성 및 활용 방안**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금은 총 5억 원의 기초 자산 필요
- 현재 장학기금 잔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설립을 위해 약 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이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부족분을 협회 발전기금에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함
- 향후 장학재단 운영 과정에서 협회 인건비 일부를 재단 경비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협회 재정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장학재단 거버넌스의 핵심**

- 장학재단은 협회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이 출연되는 구조이므로 협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버넌스가 필수
- 이에 따라 협회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여 협회가 주도적으로 재단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은 재단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출연금과 재산은 이사회 의결 및 감독 청 통제를 받도록 설계
- 해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로 귀속되어 출연 자금이 협회 목적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구조화

**5. 추진사항 및 진행 방향**

- 현행 발전기금 관련 규정에는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본 안건의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기금 사용 관련 규정 개정과 장학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한 총회 승인이 필요함
- 총회 승인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재단 설립 승인을 요청하고, 이후 해당 법인을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정 허가 추진 예정
- 본 추진 과정은 관계 법령, 감독 청 승인 절차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 5) 문화상 심의 및 회원전 심사결과 보고 건 - 사무처장 보고

## ①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심사결과

<b>특별공로상</b>	김기태 (인천지회)	신영식 (광양지부)
	장일미 (평택지부)	한낙영 (중구지부)
<b>작품상</b>	김기수 (대전지회)	- 경계의 단면
<b>출판상</b>	김삼경 (진주지부)	- 변천(變遷), 60년의 세월을 담다
	윤영녀 (광주지회)	- 산빛,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서 서다
	이강석 (통영지부)	- 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수인 (익산지부)	- 한민족의 구심점 독도
	최진식 (창녕지부)	- 창녕 관룡사
	황치길 (울산지회)	- 마음, 행복으로 물들다
	고흥지부 (지부장 박만석)	괴산지부 (지부장 정하준)
<b>지회지부 발전공로상</b>	서산지부 (지부장 편선환)	안성지부 (지부장 엄태수)
	의왕지부 (지부장 김윤정)	평창지부 (지부장 정봉주)

## ② 제63회 전국회원작품상 심사결과

<b>우수작품상 수상자</b>	
강성돈 (대전지회) - 칭밖의 연인	고광중 (광주지회) - 아침에 빛
국향숙 (양천구지부) - 투영	김기수 (대전지회) - 경계의 단면
김윤정 (의왕지부) - 뒤안길	김은연 (밀양지부) - 시선
류해상 (합천지부) - 그물작업	박국희 (여수지부) - 무희
박승호 (용인지부) - 호기심	오봉희 (전주지부) - 촛불잔치
이석준 (송파구지부) - 여의도 빌딩	조영호 (부여지부) - 세계로
채금순 (과천지부) - 유방	최영규 (강남구지부) - 아침 강변
최인옥 (광주지회) - 행복한 동행	

## 10) 규정 개정의 건

## ■ 도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 원안승인

<b>개정 전</b>	<b>개정 후</b>
제7조 (선출) 도지회장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b>제7조 (선출) 좌동</b>
① 임원	① 임원
1. 도 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1. 좌동
2.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단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20.07.30.개정)	2. 좌동
3. 수석부지회장 및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2025.07.24.개정)	3. 좌동
4. 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이 임면한다.	4. 좌동
5. 지회장의 결위 시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석부지회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 임기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25.07.24.개정)	5. 좌동
②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 당선된 도지회장은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 될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2021.02.18 개정)	②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 도지회장이 소속된 지부는 도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선출해야 한다. (2026.01.22 개정)
1.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좌동
2. 대의원의 보선은 지부 간사회에서 선출한다.	2. 좌동
3. 지부별 대의원의 수는 지부의 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3. 좌동
가. 회원 20명까지의 지부는 지부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2017.06.27 개정)	가. 좌동
나. 회원수가 20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단, 회원수 증가의 변동범위는 1명이상 20명으로 한다.(2017.12.20. 개정)	나. 좌동

## 사유 : 도지회장 대의원 추천의 명문화

<b>제28조 (선거공고) (2013.10.16개정)</b>	<b>제28조 (선거공고) (2013.10.16개정)</b>
① 선관위원장은 차기 지회장의 선거 30일 이전까지 도(道)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① 좌동
② 선관위원장은 지회장 후보자의 흥보물과 선거안내문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도(道)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좌동
③ 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거일 15일 이전부터 10일간 도 지회사무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③ 좌동
④ 선거공고 기간 내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를 재공고하거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26.01.22 신설)	
⑤ 도지회장 주대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파선거권 제약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대하는 경우에는 재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6.01.22 신설)	

## 9) 사업 승인의 건 - 승 인

①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최고상권 변경, 추인)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북도 도지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 ② 제20회 고양 전국 꽃사진공모전(재인준) - 승 인

## ③ 니하오 차이나! 중국 관광 사진 공모전 (입회점수 없음) - 승 인

<b>후원명칭 승인</b>	
행사 명	니하오 차이나! 중국 관광 사진 공모전
공동주최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중국동방항공, 한국사진작가협회

개정 전	개정 후
제 35 조 (재선거) (2013.10.16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자가 제34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일은 18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35 조 (재선거) (2026.01.22. 개정) ① 당선자가 제34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좌 동
<b>사 유 : 후보자 미등록 시 정기총회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총회 의결에 따른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b>	
<b>부 칙</b>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2024년 9월 26일 기준으로 연임 중인 도지회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해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3.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지부 운영규정 - 원안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33조 (선거공고) (2026.01.22 개정) 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공고 기간 내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를 재공고하거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26.01.22 신설) ③ 지부장 추대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선거권 제약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대하는 경우에는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6.01.22 신설)
<b>사 유 : 후보자 미등록 시 정기총회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총회 의결에 따른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b>	

**■ 광역시 운영규정 - 원안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회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회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2016.09.22. 개정) 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회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회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공고 기간 내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선거를 재공고하거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26.01.22 신설) ③ 지회장 추대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선거권 제약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대하는 경우에는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6.01.22 신설)	제33조 (선거공고) (2026.01.22 개정) ①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좌 동
<b>사 유 : 후보자 미등록 시 정기총회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총회 의결에 따른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b>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재선거) (2013.10.16.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39 조 (재선거) (2026.01.22. 개정) ①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좌 동
<b>사 유 : 후보자 미등록 시 정기총회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총회 의결에 따른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b>	

개정 전	개정 후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013.10.16.개정) 2.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b>부 칙</b>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013.10.16.개정) 2. 본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사진작품 심사규정 - 원안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제한) (2013.01.31. 개정) ① 심사는 주최 또는 주관처의 동일지역 심사위원 수가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지역은 도(道),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 한다. ② 심사자격자는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 촬영대회 등에 년 10회를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심사는 년 1회(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회 지부장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친 경우 당해년에는 상대 지회/지부장을 본인이 속한 지회 지부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18. 4. 13. 재정)	제10조 (제한) (2013.01.31. 개정) ① 좌 동  ② 심사자격자는 협회에서 인준한 공모전, 촬영대회 등에 연 5회를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최 또는 주관처의 심사는 연 1회(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좌 동
<b>사 유 : 심사 횟수 제한 확대</b>	

개정 전	개정 후
<b>제11조 (출품) (2021.11.27 개정)</b> ① 심사 자격자가 국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경우 출품일로부터 1년 간 심사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사진대전, 시도사진대전 제외) ② 공모전을 주최·주관하는 지회·지부장, 사무국장 및 직계가족은 해당 대회 출품을 금지한다. (2023.07. 20.개정) ③ 공모전 수상 작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상권을 취소할 수 없으며, 상습적인 취소요청자의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여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출품을 금지 시킬 수 있다.	<b>제11조 (출품) (2026.01.22 개정)</b> ① 심사 자격자가 국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경우 출품일로부터 1년 간 심사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사진대전, 시도사진대전, <b>초대작 기제도 운영대회 제외</b> ) ② 좌동 ③ 좌동
<b>사 유 : 출품 제한규정의 완화</b>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b>3.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시·도 사진대전의 경우 사무국장의 출품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사무국장은 사진대 전 업무에 일체 관여해선 아니 된다. (2026.01.22. 신설)</b>	
4. 이 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자문위원 추대의 건 - 승 인**

No	소속	회원NO	성 명	입 회 일	적 용
1	관악구지부	205-04537	정인식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2	도봉구지부	210-04199	배창완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3	용산구지부	221-01823	이인자	1981-11-28	입회 30년차 이상
4	광주지회	22-04646	강경숙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5	광주지회	22-04650	류동수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6	광주지회	22-04651	이광남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7	광주지회	22-04503	이동명	1996-01-27	입회 30년차 이상
8	광주지회	22-04652	이순옥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9	광주지회	22-04826	정태평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10	광주지회	22-04657	조향구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11	대구지회	13-05043	김역규	1997-09-20	입회 30년차 이상
12	대구지회	13-05044	박향규	1997-09-20	입회 30년차 이상
13	대구지회	13-05100	신주철	1997-11-21	입회 30년차 이상
14	대구지회	13-05131	윤순분	1997-12-12	입회 30년차 이상
15	대구지회	13-05132	장규석	1997-12-12	입회 30년차 이상
16	부산지회	12-04610	이종진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17	인천지회	14-04574	양준기	1996-05-18	입회 30년차 이상
18	제주지회	153-04725	문창호	1996-10-19	입회 30년차 이상
19	제주지회	153-04726	박영진	1996-10-19	입회 30년차 이상
20	제주지회	153-04727	박철진	1996-10-19	입회 30년차 이상

No	소속	회원NO	성 명	입 회 일	적 용
21	제주지회	153-04703	이명섭	1996-09-14	입회 30년차 이상
22	제주지회	153-04922	최명화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23	홍천지부	108-04616	강영복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24	홍천지부	108-03354	신동희	1991-12-14	입회 30년차 이상
25	홍천지부	108-04618	장홍균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26	성남지부	54-04597	김찬홍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27	성남지부	54-04842	홍동철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28	구미지부	64-03771	엄태섭	1955-01-14	입회 30년차 이상
29	하동지부	78-04776	정순일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30	익산지부	46-04969	최덕환	1997-0-22	입회 30년차 이상
31	목포지부	19-05081	도태철	1997-10-25	입회 30년차 이상
32	목포지부	19-04632	문해정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33	목포지부	19-06445	조로옥	2001-12-19	입회 20년 이상,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34	순천지부	41-03090	김주철	1990-05-26	입회 30년차 이상
35	순천지부	41-04239	황석동	1995-07-22	입회 30년차 이상
36	영암지부	168-04126	이운기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37	충주지부	39-05077	배복형	1997-10-25	입회 30년차 이상
38	논산지부	60-04245	김진호	1995-07-22	입회 30년차 이상

**12) 심사자격자 인준의 건****① 전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 승 인**

번호	성 명	입회일자	자격 기준	구 분	소속	비고
1	박병철	2021-04-01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025년제4차이사회인준)	전국심사자격	정읍	
2	이기준	2017-05-16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025년제4차이사회인준)	전국심사자격	예산	
3	정인식	1996-03-23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관악구	
4	강면구	2015-01-29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5	김 철	2016-03-17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6	노국근	2015-03-26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7	김동읍	2015-01-29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대구	
8	김직년	2012-09-26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울산	
9	이주영	2014-07-24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울산	
10	이향룡	2010-10-28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울산	
11	어승완	2006-06-23	경기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명	
12	김수연	2014-07-24	공모점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구리	
13	서능원	2017-10-26	경기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안양	
14	박성우	1995-06-17	경기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여주	
15	박미주	2006-10-26	경상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안동	

번호	성명	입회일자	자격 기준	구분	소속	비고
16	이근수	2001-12-19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마산	
17	이종우	1999-01-16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진해	
18	정동진	1997-07-26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통영	
19	나요안	2012-09-26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나주	
20	박곡희	2015-01-29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여수	
21	정인호	2014-03-18	전라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여수	
22	편선환	2016-05-19	충청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서산	
23	김순범	2016-07-21	공모점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태안	

## ② 지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 승인

번호	성명	입회일자	자격 기준	구분	소속	비고
1	김승현	2015-01-29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2	박순기	1986-09-13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3	백순현	2010-12-23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4	윤명자	2013-10-16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5	이광남	1996-07-20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6	전강열	2016-03-17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7	정희안	2013-11-14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11.	지역심사자격	광주	
8	박영조	2010-04-02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2.09.22.	지역심사자격	대구	
9	장덕재	1998-07-25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0.11.08.	지역심사자격	울산	
10	전석호	2013-11-14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08.25.	지역심사자격	울산	
11	권일영	2012-05-24	경상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1.09.26	지역심사자격	포항	
12	윤채현	1998-07-25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10.12.	지역심사자격	마산	
13	도건호	1999-03-20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5.10.12.	지역심사자격	창원	
14	문성용	2014-11-05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지정일:2020.08.22.	지역심사자격	장흥	

## 13)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인

## 〈임원〉

서울특별시지회 : 기획간사 - 오건호	총무간사 - 추민지
관악구지부 : 지부장 - 정영섭	부지부장 - 도희덕, 이금자
지부감사 - 이동진, 유채완	사무국장 - 이남숙
재무간사 - 김선아	기록간사 - 백운란
교육간사 - 김은미	기획간사 - 이경화
홍보간사 - 박호순	행사간사 - 정진해
촬영간사 - 김영재	정보간사 - 최종림
전북도지회 : 수석부지회장 - 오충모	
제주지회 : 조직간사 - 양영준	홍보간사 - 김은애

## 과천지부 : 지부장 - 박인가

사무국장 - 김정한	재무간사 - 박수연
기록간사 - 김인자	기획간사 - 전기종
사업간사 - 양창주	홍보간사 - 이금숙, 송영숙
진행간사 - 정선옥, 안애자	
운영간사 - 채금순, 김운호, 원대연	
지부감사 - 김정자, 오성근	

## 남양주지부 : 지부장 - 남윤세

부지부장 - 김성희, 손준식
지부감사 - 김천수, 김정혜
재무간사 - 이종분

사업간사 - 권영광  
홍보간사 - 김학수  
연구간사 - 홍노미  
정보간사 - 김형수

수원지부 : 사무국장 - 박정숙

평택지부 : 사무국장 - 손정수  
기록간사 - 장경애

하남지부 : 지부장 - 강준옥

청도지부 : 지부장 - 성태숙

밀양지부 : 지부장 - 손희권

창녕지부 : 사무국장 - 권동호

광양지부 : 지부장 - 신영식

신안지부 : 사무국장 - 범은혜

청주지부 : 지부장 - 신명현

태안지부 : 지부감사 - 김종산

## 〈입회〉 - 75명

강동구 : 심재형(정)  
강서구 : 임현옥(정)  
도봉구 : 김종숙(정)

마포구 : 조원봉(정)  
송파구 : 김대신(정), 배경한(정), 배문희(정)

대구 : 금건영(정), 신호억(정)  
대전 : 명수정(정), 박종예(정), 안봉환(정), 오공순(정), 이호남(정), 임규철(정), 조현미(정)

부산 : 권혁순(정), 김광자(정), 김병철(준), 서국원(정), 이양순(정), 장수철(정), 정조훈(정), 조가현(정)

세종 : 김은수(정), 박경미(정)  
인천 : 송석명(정), 신남숙(정)

제주 : 김영식(정), 안민지(정), 양연심(정)  
춘천 : 차준섭(정)

태백 : 신현태(정)  
평창 : 김진혁(정)

고양 : 김혜숙(정), 안인근(정)  
김포 : 정승진(정)

용인 : 한복교(정), 한소영(정)  
안양 : 이종열(정), 임미경(정), 정두섭(정), 최병진(정)  
이천 : 전일수(정), 흥석복(정)

구미 : 배승호(정)  
포항 : 김현숙(준), 이영희(준), 지광식(정)

진주 : 박정옥(정)  
군산 : 김병일(정), 임지현(정), 조성구(정)

부안 : 김호승(정), 심상철(정)  
익산 : 권남규(정), 김경애(정), 오고식(정), 이영범(준), 김진(정)

나주 : 김영갑(준), 박규백(정), 박성호(정), 안태훈(정), 이태신(정), 황기택(정)

순천 : 류미숙(정), 마주열(정), 박경숙(정), 안영오(정), 이영옥(정)  
화순 : 장현철(정)

청주 : 하봉희(정)  
서산 : 차애숙(정)

태안 : 김형주(준)

〈승격〉 - 14명

대구 : 배중현, 백성오  
부산 : 김동하  
제주 : 김휴찬  
평창 : 정무룡  
군포 : 한재수  
성남 : 박영옥  
수원 : 김미화  
양산 : 정영아  
창녕 : 김경애  
청주 : 김은배, 유재희, 최상호  
태안 : 정재우

〈복권〉 - 7명

대구 : 배말분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강릉 : 박치남 - 자퇴 / 완납복권

평창 : 정호철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성남 : 박진호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안동 : 권선자 - 자퇴 / 완납복권 / 징계 관련 절차 진행  
포항 : 이용규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군산 : 김재우 - 장기회비미납 정권 / 완납복권

〈제명〉 - 1명

부산 : 곽창현  
- 장기회비미납 정권(2024.03.21.) / 지회 제명요청

## 〈정 권〉 - 2명

고 양 :

권혁국 - 장기회비미납 정권보류(입회 36년차) / 5년 미납 정권요청

양태건- 장기회비미납 정권보류(입회 33년차) / 5년 미납 정권요청

## 14)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승 인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박국인	제2021-0813호	강서문화원	강서구	왕초보 사진교실	24주/36시간
2	이재복	제2025-471034호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주	사진 포트폴리오	15주/30시간
3					사진 아카이브	15주/30시간
4	호준진	제2021-0212호	광명하안노인복지관	광명	사진과 카메라	20주/40시간

## 15) 기타의 건

- ① 사진예술대학 6기 모집
- ② 사진데이터 아카이빙 관련 안내
- ③ 신임 지회, 지부장 인준 관련 위임 건
  - 차기 이사회 개최전 접수되는 신임 지회·지부장 인준 요청에 대해서 자격심의팀 심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인준서를 발급하고 추인 받도록 위임함
- ④ 지회·지부 지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해를 넘어간 이후의 신청은 지금 하지 않기로 함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지도 안내**  
제주도 풍경 및 장소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 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정기총회 및 사진촬영회 개최

## 물안개 춤추는 바다 멀치배 촬영

글, 사진제공\_한서정(송파구자부 지부장)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 기념 사진



권경애 위원장  
을 비롯한 박유자,  
이석준 부위원장  
이만태 사무국장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난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2시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정기총회 및 촬영회가 1박 2일간 개최하였다. 구미의 아뜰리에21 전시장에서 김민주 작가의 개인전 "미묘한 흐름"을 감상과 김현주 작가의 "흔들림의 세상" 강의가 있었다. 이후 2026년 환경사진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안과 2025년 분과 회계 결산을 이만태 사무국장 보고하였다. 다음날 촬영회 참여를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는 다음날 새벽 6시 강양항에서 모이기로 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울산 울주군 강양항 새벽은 멀치배와 갈매기들과 물안개로 사진작가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이날 사진촬영회는 환경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권경애) 주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사진촬영회가 분과위원 30여명과 본협회 이향룡 부이사장 외 울산지회 회원 및 근처의 사진동호회 회원 수 백명이 참여하여 추위도 잊은채 촬영회로 진행되었다. 어부랑 멀치배 해변의 갈매기들과 아침 일출 물안개가 어울어지는 대자연이 만남의 조화로 최고의 창작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촬영회였다.



©한서정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정기총회 후 참여자 단체 사진촬영

## Palimpsest 팔림세스트

##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졸업증서 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졸업생들, 내빈 및 외빈들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축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인사말을 하는 조주은 교수



인사말을 하는 장일미 사진예술대학 제5기 회장

지난 14일(수)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6에 있는 갤러리 라메르 3층 전시장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개전식을 사진작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요한 교육부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팔림세스트란 지워지고 다시 쓰이며 여러분의 시간이 펼쳐진 기록을 의미한다. 제5기 작가님들은 각자의 기억, 사회, 역사 그리고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견디며 흔적들을 작품으로써 풀어냈고, 이 전시는 그러한 중첩된 시상들과 기록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44명에 대한 유수찬 이사장의 졸업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본 교육과정 기수 대표인 장일미 5기 회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백만종, 이향룡, 김시록 부이사장, 이덕만 감사, 배택수 상임이사, 문제민 교육위원장,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장, 강돈영, 이막래, 최임순, 한재원, 이재수, 이성록, 박인호, 신경애, 윤판문, 이연숙, 백승의, 정재문 이사, 조주은, 윤은숙, 이승자, 유병용 교수, 김가중 한국사진방송 대표, 김광재 사무국장, 이기복 드론사진분과위원장, 최상귀 한국디지털아트홀 대표, 김형준 본부사무처장, 윤지한 자문위원, 백승의 총동문회장, 이연숙 2기 회장, 윤홍선 3기 회장, 이석준 4기 회장, 한국사협 김용열 포토샵 교수, 송위혁 성남예총 회장, 윤상섭 PR에이드 대표, 김상수 서울지회 부지회장, 한서정 송파구지부장, 이권희 금천구지부장, 임효례 군포지부장, 현승규 성남지부장.” 등이 호명되었다.

이어 김요한 교육부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서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예술대학에서 공부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협회가 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며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협회가 지난 예술적·사회적 책무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지평선이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작품집은 단순히 결과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사진예술대학 제5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배움과 사유, 실험과 도전의 흔적이 집약된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각 작품에는 기술 습득을 넘어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창작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진예술대학이 앞으로도 한국 사진예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중심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주은 교수는 인사말에서 “전시는 단순히 작품만을 거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작가가 세상에 자신의 사유와 선택, 그리고 시간의 흔적들을 공개하는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전시회 작품들이 하나의 이미지 모둠만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잘 통과해 온 시간대 결정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과거와 미래가 농축된 작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의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백승의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장이 축사했다. “유수찬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작품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행복을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작품들을 보면 1기 때보다 발전했고, 사진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사진작가협회의 발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일미 사진예술대학 제5기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팔림세스트는 지워진 것과 남겨진 것,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는 시간의 예술을 주제로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시간인 전시회에 새로운 의미가 덧입혀지며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 역시 각자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현재의 시선이 중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가며 또 어떻게 다시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각 작품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김진환 작가가 오늘 작품전시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지워진 시간의 흔적에서 건져 올린 희망, 파도가 밀려와 모래 위에 벌자국을 지우지만, 바다는 그 모든 벌자국을 품고 더 깊어집니다. 저는 이번 작업의 출발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은 없다는 팔림세스트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현재의 희망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적막한 풍경은 저에게 고요한 위안이자 다시 나아갈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양을 지닌 탐구형 철학적 사진작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내빈과 임원들이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했다. 작품을 감상하고, 인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 전시회는 오는 19일(월)까지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내빈과 임원들이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 촬영지도위원회2026년 정기총회 개최 “현장 중심 지도력과 공정한 운영이 핵심”

글\_강돈영(본협회 이사,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총회를 마치고 단체기념촬영



총회 개최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회는 1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사업 실적 및 재무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는 촬영지도위원회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현장 지도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회에 참석한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촬영지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촬영지도위원은 협회의 얼굴이자, 현장에서 회원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 주체”라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이는 일이 곧 협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품격 있는 태도가 협회의 위상을 결정한다”며, “기수나 개인이 아닌 협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 의식을 늘 염두에 두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촬영지도위원회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제6기 사진촬영지도자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해당 교육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진행됐으며, 보수교육 10명을 포함한 총 1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촬영지도위원 인력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기존 위원과 6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촬영지도위원회 조끼를 제작·보급해 현장 지도 활동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성록 위원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촬영지도위원회는 단순한 기수 중심 조직이 아니라 협회 직속의 전문 조직”이라며, “기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회의 진행을 하는 이성록 위원장(본협회 이사)



총회 사회를 맡은 정재문 부위원장(본협회 이사)

이어 “촬영대회 현장은 협회의 얼굴인 만큼 지도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전문성이 곧 협회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2026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위원장은 “올해는 워크숍을 반드시 정상화하고 확대해, 선배 기수의 지도 노하우를 후배 기수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역량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동강축제 기간 전시와 연계한 1박 2일 워크숍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지도위원 활동 규칙과 관련해 위원장은 “특정 기수에 추천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동이 적었던 위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모든 위원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촬영지도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운영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신뢰 중심의 지도위원회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 ●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자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자부에 납부)

**지회, 자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광역시지회, 자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파선거권 정지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하합니다

(1월 입회자)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6년 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025년07월(33명) : 3,300,000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025년09월(40명) : 4,000,000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2025년11월(41명) : 4,100,000
□ 30대적립금(2023.3월~9월말) : 129,125,862		
계 : 1,239,015,548(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39,6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 2021년 계 : 27,700,000		
⑦ 2022년 계 : 32,200,000		
⑧ 2023년 계 : 16,900,000		
⑨ 2024년 계 : 25,900,000		
⑩ 2025년 계 : 30,500,000		
▷ 2025년01월(108명) : 10,800,000		
▷ 2025년03월(56명) : 5,600,000		
▷ 2025년05월(27명) : 2,700,000		
○기타 계 : 101,414,082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55,987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47,769,875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39,015,548 (a-b)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한병률(경산) 운영자문위원 영식훈

2026년 1월 4일(일) 오후2시10분 서울 월드컵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2026 전국 사진강좌 안내(3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인천전국사진강좌	인천지회	3월 7일(토) 오후1시~5시	수봉문화회관 소강당
대전전국사진강좌	대전지회	3월 21일(토) 오후1시~5시	대전 동구문화원 4층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초원의 혼(魂), 그 영원하고 뜨거운 질주 – 병오년 馬

한병률 홍계표 이도형 3인전

1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1월 16일(금) ~ 2월 9일(월)  
전시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커뮤니티센터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3월 1일(일) ~ 3월 31일(화)  
전시장소 대구 수성구 매호동 달커플갤러리  
전시작가 한병률(010-5610-0236) 홍계표(010-3546-2810)  
이도형(010-4221-0856)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다. 세 명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초원의 풍광이나 말의 외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가을의 흙 먼지와 호수 속에서도, 겨울의 설원 위에서도 동일하게 뿐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피'와 '불굴의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  
뷰파인더 너머로 마주했던 그들의 거침없는 애성이, 이 작품들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치지 않는 건강과 희망, 그리고 위대한 성취를 향한 뜨거운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한다.〈작가노트 중에서〉



## 전선 위의 참새

정경원 사진전

어린 시절 전선에 나란히 앉은 참새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카메라를 들고 전선을 쳐다본다. 참새 대신 내 시선이 그 위에 앉았다. 전선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다.〈중략〉

전선은 연결과 단절,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도시의 이면이다.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의 토대인 전선 위로, 참새가 떠난 빈자리를 떼까마귀가 채운다.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도 전선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그 역사를 증언한다. 이 전선을 매개로 도시를 새롭게 읽고 그 본연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3월 3일(화) ~ 3월 8일(일)  
전시장소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2전시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오프닝 2026년 3월 3일(화) 17시  
전시작가 정경원(010-9452-8100)

## 제주, 믿음의 등불 – JEJU, The Light of Faith

제8회 이춘희 개인전



1차 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7일(일) ~ 12월 31일(수)  
전시장소 할렐루야교회 2층 루아아트 갤러리  
2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3월 3일(화) ~ 3월 31일(화)  
전시장소 제주극동 방송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  
3차 전시 전시일시 2026년 4월 1일(수) ~ 4월 30일(목)  
전시장소 제주대정교회 비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6번길 11)  
전시작가 이춘희(010-6326-1114)

'제주,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제주도의 눈부신 자연과, 1908년 목음의 첫 불씨 이후 이 섬을 밝힌 기독교 신앙의 빛을 기록하고자 시작된 사진 프로젝트이다. 바람과 바다, 돌담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제주의 교회 풍경은 오랜 무속의 땅을 비춘 영적 등불이며, 세대를 건너 이어진 현신의 증언이다.〈중략〉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빛의 증언'이다. 제주 본섬과 먼 섬의 교회까지 찾아간 촬영의 여정이 관람자에게도 작은 순례의 창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진에 담긴 교회의 빛과 공동체의 숨결이 마음에 위로와 영적 울림을 오래 스며들기를 바란다.〈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2월 25일(수) ~ 3월 2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F (관람시간 10:30~18:3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35-6 신관1F)  
개전식 2026년 2월 25일(수) 16:00  
전시작가 서정철(010-7155-3210)

마다가스카르는 바람이 노래하고, 흙과 바다가 오래된 전설을 품은 섬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오밥 나무. 수천 년을 살아온 거대한 몸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중략〉

신이 된 바오밥은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변화를 한없이 지켜봅니다. 대지의 심장처럼, 사람들의 기도와 웃음, 그리고 슬픔까지 모두 품은 채요.

이번 전시는 관객이 그 앞에 서서, 잠시나마 그 긴 시간과 넓은 품속에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무와 눈을 맞추고 스스로도 시간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작가노트 중에서〉

## 기억이 머문 자리 김상필 사진전

전시일시 2026년 3월 10일(화) ~ 3월 15일(일)

전시장소 부평 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전시작가 김상필(010-7331-9210)

도시의 변화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조용히 과거형이 된다. 나는 서울과 인천의 오래된 골목, 언덕 위 달동네, 개발의 경계에 놓인 마을들을 걸으며,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삶의 온기'를 마주했다. <중략>



이 작업은 사라진 자체를 애도하기보다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남아 있는 '기억의 잔상'을 붙잡기 위한 시도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경계에서, 도시는 언제나 존재와 부재, 속도와 정지의 두 얼굴을 동시에 드러낸다. 사라지는 풍경을 기록하는 일은 결국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일이다. 이미 지워지고 있는 곳에서 조차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 기계의 심장을 투과하는 하얀 시선

이담영 두 번째 개인전 - <BLACKBOX : An AI's Perspective on Classic Mechanics>

1차 전시(서울) 전시일시 2026년 2월 3일(화) ~ 2월 10일(화)

전시장소 57th 갤러리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17-안국역 1번 출구)

2차 전시(일산) 전시일시 2026년 2월 22일(일) ~ 2월 28일(토)

전시장소 한갤러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태영프라자 B1 한양문고 내)

전시관람료 무료



그는 이번 전시 <BLACKBOX: 클래식 매카닉에 대한 인공지능의 시선>을 통해 카메라 렌즈가 닿을 수 없는 곳을 보여준다. 펜 대신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든 작가는 클래식 카의 내부를 투명하게 투과하여 캔버스 위에 펼쳐 놓는다. 이것은 차가운 기계 장치를 빌려 대상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적 보고서이자,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그려낸 아날로그의 정밀화다. <중략>

겉모습을 찍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상의 본질에 닿을 수 없음을 작가는 잘 알고 있다. 이담영이 AI와 함께 그려낸 이 투명한 기록들은 옮겨올,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을 응시하는 법'을 조용히 일러줄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2026 제40회

# 창원전국

Changwon National Photo Contest

# 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는 고향의 봄 축제 일환으로 제40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작품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공정한 공개 심사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시 2026년 4월 5일(일) 오후1시

심사장소 창원문화원 지하2층 공개 심사

심사발표 2026년 4월 6일 이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사협 창원지부 홈페이지 게재 ([www.paskcw.net](http://www.paskcw.net))

전시일시 2026년 5월 5일 ~ 5월 11일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시상식 2026년 5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작품내용 자유작 (유사작 및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시 취소함)

응모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작품규격 11" x 14" 사진 (흑백 또는 컬라) 4점 이내

출품사항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

응모기간 2026년 4월 3일(금) 도착분

접수료 1인당 2만원

접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39번길 19-22  
(용호동, 창원문화원)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우 51431)  
지부장 010-3561-4772 / 사무국장 010-2845-0414

### 시/상/내/역

금상 1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명 : 한국예총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3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작가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장려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입선 : 총 출품자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저작권/저작물 이용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항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입회유보, 초상권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불참시 상금·부상은 불우이웃돕기 기탁합니다. (대리 수상 가능)
  - 컴퓨터그래픽, 지나친 색상 조정은 입상 취소됩니다.
- 특별사항 : 작품집을 출품자 전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사협 입회 점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의 반환은 없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을 보내드립니다.



“문화가 생활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당진”

# 제22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6. 4. 10.(금) 당일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에서는 제22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요령

출품자격	제한없음
출품료	1인당 20,000원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11" × 14"에 한함(패널불요)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접수처	(우. 31776)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72 (사) 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지부장 010-5432-5656/사무국장 010-3398-4499 TEL. (041)357-4567, FAX. (041)357-4567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입

접수 기간 및 마감일  
2026년 3월 10일 ~ 4월 10일(금) 까지 당일소인유효

## 심사 전시

심사발표	2026년 4월 17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품(해나루쌀 30kg 1포) 은상 2점 - 당진시장·당진시의회의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20kg 1포씩) 동상 3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10kg 1포씩) 가작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출품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전시장소	당진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전시기간	4월 중 예정

## 기타 사항

작품반출	입상, 입선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 -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선정된 작품은 당진시와 사협당진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기 발표된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 됨은 물론 상장을 즉시 반환,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자격이 7년간 유보됨.
------	--

제64회 진해군항제

제37회 진해벚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제64회 진해군항제를 맞이하여 벚꽃과 어울어진 이 행사를 빛내고 사진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사진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37회 진해벚꽃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촬영일자

2026년 3월 29일[일] 오전 9시30분(우천불구)

대회장소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응천로 218)
참가자격	제한없음
출 품 료	1인당 3만원(당일현장접수, 농협 301-0188-2820-21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참가신청	현장접수 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작품내용	1) 모델부문 : 당일 대회장에서 촬영한 모델과 전경(당일모델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2) 기록부문 : 진해군항제 기간중 촬영한 작품
출 품 규격	칼라 및 흑백 11x 14인치(장정불요)
출 품 수	4점

## 접수 마감

2026년 4월 17일 금요일[도착분]

접수처 (우)51679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벚꽃로 61 (진해카메라 스튜디오)

지부장 010-5248-8422. 사무국장 010-3709-0813.

접수증 원본을 작품뒷면에 부착하고 나머지 작품은 복사 사본 부착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심사일자 2026년 4월 19일(일요일) 오후 1시

심사장소 진해문화센터 2층 컨벤션센터

심사발표 2026년 4월 20일 일요일 사협홈페이지 발표

시상 2026년 5월 9일(토) 오후 2시 진해문화재단 1층 전시실(구. 구민회관)

전시기간 2026년 5월 9일 ~ 11일(3일간)(예정)

시상내용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작품매입비 100만원

▶ 은상 2점 : 창원시시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30만원

▶ 동상 3점 : (사)진해예총지회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10만원

▶ 가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부상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 입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입선작은 총 출품작 수의 20%이내 선정-입상작 포함)

##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협 입회점수 인정 ▶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과도한 디지털 합성 및 수정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장은 시상후 우편우송)
- ▶ 입선,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에 출력파일 3000픽셀 이상 ( E-Mail: [jonguo@hanmail.net](mailto:jonguo@hanmail.net) )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장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문의 사항은 진해지부장(010-5248-8422)으로 문의

# 향수 사진전국공모전



제27회

옥천이 낳은 현대시인의 거성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제39회 지용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시·향수를 주제로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마감: 2026년 4월 13일 (당일소인 유효)**

**응모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작품내용** 향수(고향, 전통놀이, 문화, 경노, 풍습, 효, 옛 정취)를 연상하는 풍경이나 연관된 창작사진(미 발표작)

**작품규격** 흑백 및 칼라 11"×14" [규격엄수]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

**접수마감** 2026년 4월 13일 (당일소인 유효)

**접 수처** [29039]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옥천문화원 내)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  
(☎ 043-733-3060, Fax. 043-733-4410)  
지부장\_010-9554-6021

**심사발표** 한사협 홈페이지 및 옥천지부 카페 공지

**작품전시** 지용제 행사장

**전시장소** 지용제 행사장 (상설전시장)

## 기 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있음.
- 수상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사업 목적에 한해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후 모든 수상자는 5일 이내에 이메일 (jwpark58@hanmail.net)로 원본 파일을 3,000×2,000pixel 이상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는 상권 취소함)

## 주의사항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금·은·동 수상자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입선은 출품작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 분쟁 시 출품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 시상내용

구 분	점 수	시 상	시 상 자
금	1	한사협 이사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100만원	한사협 이사장
은	2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각 50만원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동	3	옥천지부장, 옥천예총지회장 옥천문화원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한사협 옥천지부장, 옥천예총지회장, 옥천문화원장
작가	5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장려	5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입선	출품수 20% 이내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500 원**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앱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앱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b>495,000</b>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b>345,000</b>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b>609,000</b>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원목액자	사진용지	축제·행사 장비대여
<b>Canon</b> <b>EPSON</b>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 할인	<b>Natural, Brown</b> 11R=6,600원	<b>Canon</b> <b>EPSON</b> <b>SINJI</b>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SINJI No.1 사진관 출력 기자재**  
Photo Paper · Photo Printer · 정품잉크 · 접착용지 · 액자 · 블루 · 비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협력업체

전국 예술학부 20여학과 납품

#1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www.studioclub.co.kr 010-2253-2786

**제57회 한밭 전국사진공모전**

**2026년 4월 9일(목) 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인정

**출품 요령**

- 출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작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출품규격 : 흑백 및 컬러 11" X 14" 에 한하며 [긴 변의 길이가 14인치를 초과할 수 없음]
- 출품요령 :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 출품료 : 1인당 20,000원
-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 접수마감 : **2026년 4월 9일(목) 소인유효**
- 접수처 : 우)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 대전예술가의집 5층 516호
- 문의전화 :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Tel. 042) 254-3280  
사무국장. 010-5453-6280 지회장. 010-8813-6666

**심사 전시**

- 심사일자 : 2026년 4월 15일 (수)
- 심사장소 : 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발표 : 추후공지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및 본회 홈페이지 게재)
- 시상식 : 추후지정
- 전시장소 : 추후지정
- 전시기간 : 추후지정

**시상 내역**

- 금상 1점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  
    사)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동상 3점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가작 5점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상장
- 장려 5점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상장
- 입선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상장 [입선작은 출품 수에 20% 이내, 입상작 포함]

**기타 사항**

- 동일 작품 등 문제작은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의거 제재하며 초상권의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선,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에 출력파일 3500픽셀 이상  
(대전지회 E-Mail : Photo3280@hanmail.net)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상권이 취소될 수 있음.)
- 변동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후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문화재단, 사)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참조 :** 홈페이지 <http://www.djphoto.co.kr>